

성평등 문화예술비평학교

문화예술다리미 2022 비평집

스팀 steam

s t e a m

김혜영, 김희정, 박진아, 이은심, 정희정, 최정빈, 황채린

성평등 문화예술비평학교 문화예술다리미
2022 비평집

스팀 steam



성평등 문화예술비평학교
'문화예술다리미'에서는



성평등 관점에서
문화예술을 '다시 보기' 위한
질문을 찾아요



지역의 문화예술작품을
성평등 관점에서
다시 바라봐요



우리의 생각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렇게 만났습니다

2019

전북지역 원탁포럼
'지역에서 성평등을
이야기하다'

2020

전북 성평등 문화 확산
네트워크가칭 준비
•
전북 여성예술인
자조모임 진행
전북지역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 포럼

2021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 출범
(8개 기관·단체)
•
성평등 예술비평학교
문화예술다리미 기초과정
참여자 후속활동 지원
비평집 『스팀steam』 발행

2022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 확장
(10개 기관·단체)
•
성평등 문화예술비평학교
문화예술다리미 심화과정
비평집 『스팀steam』 발행
포스트-미투 시대, 전라북도 성평등
문화예술 생태계 만들기 포럼

차레

들어가며

우리는 이렇게 만났습니다

4

1부 다시 보기

여는 강의

평평한 문화예술을 위한 작지만 확실한 실천

• 이승희

10

장르별 읽기

시각 왜 위대한 여성 미술가는 없는가?

• 이유리

22

영상 미투 이전과 이후로 영화를 보는 게 달라졌다

• 강지이

27

문학 파스텔톤의 표지에는 얼굴을 알 수 없는

가녀린 검은 머리의 여성이 있다

• 오혜진

31

연극 성평등 관점에서 연극을 비평하는 연습하기

• 김민조

35

팬워크숍

각자의 고민이 만나 새로운 흐름으로

• 이소정

37

2부 읽고 쓰기

소리꾼 허금파, 벽을 두드리다

• 김혜영

48

지금 만나러 갑니다. 여성소리꾼 금파, 허금파

• 지산

54

(어른이 된) 춘희에게 (아직은 어린) 춘희가

• 성냥

64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실존의 '틈'

• 황채린

70

from. 내일, to. 매일

• 이은심

77

보이지 않는 노동과 보일 수 없는 목소리 사이의 유쾌한 횡단

• 정희정

84

문화예술다리미 공유회

서로를 통해 길을 만들어가는 우리들

• 이소정

88

나가는 글

바깥의 바깥, 그 먼 곳에서부터

• 신인혜

100

부록_ 함께하는 우리

108

성평등 문화예술비평학교

문화예술다리미 2022 비평집

1부

다시 보기

s t e a m

여는 강의 2022. 9. 7

평평한 문화예술을 위한 작지만 확실한 실천

이승희

책문화기획자

성평등 문화예술비평학교 '문화예술다리미'

작년 기초과정에 이어 올해 심화과정을 시작하다

지난 9월 7일 수요일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에서 '성평등 문화예술비평학교 문화예술다리미^{이하, 문화예술다리미} 심화과정'이 시작됐다. '문화예술다리미'라는 이름에는 우리가 다리미로 옷감을 펴서 평평하고 매끈하게 하듯 문화예술에서도 불평등의 주름을 펴서 평평하게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2021년 기초과정에 이어 심화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문화예술다리미'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작년의 운영 과정을 답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은 본 사업을 진행하는 '전라북도 문화

예술 성평등 네트워크^{이하, 전북 성평등 네트워크}의 양적 확장이다. 2021년 완주문화재단을 비롯하여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고창문화관광재단, 익산문화관광재단, 전주문화재단, 전북대학교 부설 여성연구소,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지식공동체 지지배배까지 총 8개 기관·단체가 모여 만들어진 '전북 성평등 네트워크'는 2022년 부안군문화재단과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가 합류하며 총 10개 기관·단체로 늘었다. 전북권 6개 문화재단과 관련 분야 공공기관, 학계, 민간이 함께함으로써 네트워크의 활동 범위 역시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 성평등 네트워크의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문화예술다리미'의 깊이도 깊어졌다. 지난해 진행했던 기초과정에서는 참여자들이 각자 자신이 원하는 작품을 보고 비평문을 작성했다면 이번 '심화과정'에서는 모듬별로 지역의 문화예술작품을 성평등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야기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여는 강의를 통해 '지역문화예술 들여다보기'를 제안했다는 것도 유의미하다. 이러한 지점들은 이번 '문화예술다리미' 심화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투영된 결과다.

그날의 기록을 전하기에 앞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바가 있다. 그것은 '성평등 문화예술비평'이 특별히 대단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문화예술을 바라보던 다양한 관점에 '성평등'이라는 관점을 하나 더해보는 제안이라는 점이다. 비평문 쓰기에서 '비평'이라는 단어는 '비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느껴지고 해석되곤 한다. 하지만 아

이러니하게도 무언가에 대한 ‘비평’은 그 무언가를 살리는 일이지 절대 죽이는 일이 아니다. 비평의 내용이 어떠하든 그 무언가에 대한 비평은 그것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평등’의 관점이 아니더라도 ‘작품’을 보고 ‘비평’을 하고 ‘비평문’을 공유하는 일은 그 자체로 꽤나 반가운 일인 동시에 유의미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성평등 관점으로 문화예술 비평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다.

총 11차시 대장정의 문을 여는 첫 시간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함께 하고자 하는가?’

‘문화예술다리미 심화과정’의 첫 시작은 1부와 2부로 이루어졌다. 1부 오리엔테이션은 사업 소개와 참여자의 자기소개로 채워졌고, 2부 여는 강의는 ‘성평등 관점에서 지역문화예술을 바라보는 작업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지식공동체 지지배배’의 전 대표이자 『칸과 흙의 세계로 바라본 전복』의 저자인 김은혜 강사가 맡아주었다. 심화과정 답게 기초과정에 참여했던 참여자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이번 기회에 이 분야를 진지하게 들여다보고자 하는 새로운 참여자도 있어 반가움을 자아냈다.

완주문화재단에서 준비한 사업 소개는 ‘지역에서 문화예술 비평문

을 본 적 있나요?’라는 질문으로 시작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 지역을 소재로 하거나, 지역을 기반으로 한 창작물이 많지 않고 이에 대한 비평문화는 더욱 없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나아가 ‘문화예술다리미’ 사업이 이러한 현실 인식에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후 이야기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지역문화예술을 성평등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공유로 이어졌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느냐 만큼 어떤 사람들이 함께하는지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본 사업이 여타의 다른 사업과 달리 일방적으로 참여자를 이끌고 가는 방식이 아닌 ‘전북 성평등 네트워크’와 참여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임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성평등’의 ‘성’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양성의 문제가 아닌 제3의 성까지 모두 포함하는 ‘성’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과정이 ‘성’을 비롯해 어떤 이유로든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존재와 다름이 인정되는 지역과 문화예술계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 사업이 어떤 배경에서 시작되었는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에 무게를 싣고자 하는지에 대해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다.

이어서 ‘문화예술다리미 심화과정 커리큘럼 안내’를 통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함께하게 될지도 알아보았다. ‘문화예술다리미 심화과정’은 ‘오리엔테이션&여는 강의’로 1차시를 시작해 총 11차시의 과정으로 짜여졌다. 2~5차시에는 시

각, 영상, 문학, 공연 이렇게 네 가지 매체별 분석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6차시 때는 모듈별로 같은 작품을 보고 성평등 관점에서 그 작품을 어떻게 보았는지에 대한 생각을 공유한다. 7차시는 ‘펜워크숍: 질문찾기’ 시간으로 비평문을 작성하기에 앞서 ‘성평등 관점에서 문화 예술작품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이 필요할까?’ 또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이 작품을 만나야 할까?’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8~10차시에는 모듈별로 ‘지식공동체 지지배배’ 멘토와 함께 각자 1편의 비평문을 작성하고, 마지막 11차시에는 앞서 작성한 비평문을 발표하고 활동 소감을 나눌 예정이다.

오리엔테이션은 전북 성평등 네트워크와 참여자들이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니만큼 기본적인 자기소개와 더불어 각자 어떤 고민과 이유를 갖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다. 참여자들의 사연은 이렇하다.

“분주한 일상으로 인해 오랜 고민 끝에 신청했는데 ‘완주’를 목표로 내 목소리를 내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

“지역에 내려온 이후 젠더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어려워 답답했는데 이번 기회에 좀 더 확장될 수 있으면 좋겠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그동안 일상에서 느꼈던 불편한 지점을 나눠보고 싶다.”

“공부를 싫어하면서 좋아하고 좋아하면서 싫어하지만, 공부의 기쁨을

경험해 알고 있기에 이번 과정에서도 그러한 공부의 기쁨을 경험하고 싶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연결을 기대한다.”

“현재 사회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라 이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론적인 공부로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학문적인 딱딱한 관점이 아닌 말랑말랑한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보는 시간을 만들고 싶다.”

“지역에서 청년들과 월경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에코 페미니즘 활동을 해보고 싶다.”

“지난해 기초과정에 참여하며 그동안 지나치던 부분을 되돌아보게 되는 경험을 했는데 이를 지속가능하게 쭉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관계가 중요함을 깨달아 그 관계를 이어가 보고자 함께하게 됐다.”

젠더의 렌즈로 지역문화예술 함께 바라보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김은혜 강사의 2부 여는 강의 ‘젠더의 렌즈로 지역문화예술 함께 바라보기’는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지식공동체 지지배배’ 소개로 시작됐다. 2018년에 만들어진 ‘지식공동체 지지배배’는 웹툰, 소설, 시, 영화, 희곡 분야의 여성 연구자 다섯 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모임에서는 구성원들이 각자가 공부하는 내용을 공유하며 서로 자극을 받고, 때로는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정보를 공유하며 그 내용이 내부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바깥으로 확장되는 활동을 모색 하고 있다.

이 밖에도 김은혜 강사는 전북민주시민교육센터 바스락 활동가이자 만화 연구자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2월에는 『칸과 흠의 세계로 바라본 전북』이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여는 강의는 이 책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는데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기에 앞서 자신의 책을 나누어 주어 이번 시간에 다하지 못한 이야기를 책을 통해 전하고자 했다.

그의 이야기는 크게 성평등과 지역문화예술 관련하여 함께 생각해 볼 질문들과 지역 기반 작품에서 의문과 불편을 느꼈던 부분, 그리고 이전에 진행했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진행될 지역문화예술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나뉘었다. 이 이야기는 각각 우리가 어떠한 성평등 관점을 가질 것인가, 무엇을 지역문화예술로 바라볼 것인가와 함께 그러한 지역문화예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들여다보아야 할 지역문화예술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됐다.

그는 먼저 ‘문화예술다리미’에서 계속해서 등장할 ‘지역’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일상에서 ‘지역’이라는 단어는 ‘중앙’의 반대 개념으로 ‘지방’이나 ‘시골’, ‘촌’이라는 단어와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그것은 대체로 부정적이거나 부족한 것의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문화예술다리미에서는 ‘지역’을 그 자체의 의미로 가치중립적으로 사용하고자 함을 밝히는 한편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젠더의 렌즈로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지구라는 공간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 다른 삶을 열등하게 만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 만들기를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젠더, 공간, 권력』, 안수경, 한울아카데미, 2020

김은혜 강사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공유하며 우리 사회가 ‘젠더’라는 용어를 여성과 남성으로만 구분해서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음에 주목했다. 또한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것이다.’¹⁾라는 이야기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 또한 마찬가지로 단일한 것이 아님을 밝혔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까지 고정된 채 지나쳐왔던 ‘지역’ 혹은 ‘전통’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했다.

그리고 웹툰 〈집이 없어〉와 〈며느라기〉를 소개하며 “집이라는 공간이 젠더의 눈으로 장소를 바라보았을 때 가장 문제적인 혹은 가장 먼저 바라보아야 할 장소”²⁾라는 홍혜원의 논문 내용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집’이 ‘동네-마을-지역’으로 확장되기에 우리가 젠더의 눈으로 ‘집’을 바라본다면, 집의 확장된 개념인 ‘지역’도 다시 보게 된다는 이

1) 『젠더트리플』, 주디스 버틀러, 문학동네, 2008

2) 『어문연구68집』, 홍혜원, 「집의 장소와 젠더-염상섭의 '일대의 유입'을 중심으로」, 2016, p208

야기를 전했다.

다음 이야기는 『칸과 흠의 세계로 바라본 전복』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 책은 총 7편의 만화 작품에 대한 비평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만화가들의 인터뷰로 구성되었는데 이번 강연에서는 그 내용 중 일부만 다루었다.

군산 대명동 화재 참사를 모티브로 여성의 이야기를 다룬 ‘불친’의 〈해방굴 도깨비〉부터 비전향 장기수 허영철의 삶을 담은 박건웅의 〈나는 공산주의자다〉, 전주를 배경으로 막걸리를 다룬 〈대작〉, 전주의 마지막 기생 허산옥의 삶을 그린 조원행의 〈권번기생 비밀의 기억〉, 전복 기반 작품은 아니지만 전복에서도 이러한 작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룬 〈그녀의 심청〉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이렇게 5편의 만화를 들여다보며 그는 역사적 인물·사건의 재현 시 여성의 이야기가 가시화되지 않는 점이나 사투리를 사용하는 주된 인물들이 불량배 혹은 평민·천민 등이라는 점 그리고 실제와 달리 여성의 모습이 수동적 인물로 그려진 점에서 불편함과 의문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지역문화예술작품이 많지 않음을 우려하며 기본적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작품에 애정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때의 ‘애정’이라는 것은 덮어놓고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닌 ‘왜 이 작품이 중요한지’에 대해 언급하고 ‘어떠한 작품의 어떤 점이 문제인지 짚어내는 것’이기도 하다며 그래야 앞으로의 작품이 달라질 수

있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 안에서 지역의 문화예술 작품을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 지역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사례를 살펴보았다. 가장 먼저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JAWA’에서 2021년 6월부터 8월까지 발행한 뉴스레터 《주간자와 망·관·부》를 다루었다. 이 사례의 경우 여성가족부가 없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와 같은 사회적 이슈부터 지역의 여성작가 인터뷰, 지역 작품에 대한 리뷰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뉴스레터로 유의미하게 바라보았다고 했다.

그다음으로는 광주에 위치한 ‘임동 전남방직·일신방직 공장’과 그곳에서 일하던 여성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예술가들이 기록한 전시 《사건으로서의 장소》를 소개했다. 이 전시에서는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와 여성가족재단의 협업을 통해 하나의 담론을 만들어냈다는 점에 주목하며 우리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그밖에도 전북의 대표 축제 중 하나로 꼽히는 《전라예술제》, 최근 익산에서 열린 《전국 여류화가 100인 초청전》 등 각 지역의 문화예술 행사 및 콘텐츠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이렇게 다양한 사례를 통해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지나쳐 왔거나 관심 갖지 못했던 다양한 지역문화예술 작품의 존재를 떠올리게 됐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지역을 어떻게 바라보고 지

역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작품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성평등의 관점이 왜 필요하며, 그러한 관점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더하기'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은 서로에 대한 '읽'이고 이 '읽'의 과정에서 쓰이는 가장 보편적인 도구는 '언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같은 언어를 쓴다고 해서 그 언어에 대한 해석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탓에 우리는 "그게 어떻게 평등이야?", "그게 내가 이야기하는 평등이야?", "뭐가 평등이야?" 같은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일상에서 마주하곤 한다. 이는 우리가 '평등'이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해도 각자 다르게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우리는 학습과 경험을 통해 그동안 쌓아 온 합의를 기반으로 공통의 무언가를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혹은 깊이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 그 의미는 달라진다.

그러므로 어떠한 작품을 감상하고 그 생각을 세상 밖으로 꺼내놓는 일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 결과물이 글일 때는 더욱 그렇다. 글을 쓰는 행위는 나의 내면을 마주하는 일이다. 그러한 탓에 글은 자신

의 내면을 읊어 내려간 결과물이라 할 수 있고, 그 글을 공유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내보이는 일이다. 이렇게 각자의 내면을 내보이는 일은 서로 다른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정인 서로에 대한 '읽'으로 이어진다. 그렇기에 서로 다른 우리의 생각을 밝히고 전하는 일은 편을 나누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공존하기 위한 '더하기'의 과정임을 기억해야 한다.

장르별 읽기_시각 2022. 9. 14.

왜 위대한 여성 예술가는 없는가?

이유리

『캔버스를 찢고 나온 여자들』 저자

2022년 문화예술다리미의 첫 번째 장르별 읽기 강연은 린다 노클린 Linda Nochlin이 이 세상에 던진 질문을 다시 한번 수강생들에게 하며 시작되었다. 먼 옛날부터 여성들은 그림을 그리면서도 자신의 활동에 대한 여러 제약과 금지를 감내해야 했다. 옛날 여성 미술가들의 이러한 상황은 왕립미술원 회원들을 그린 그림에 직접 등장하지 못하고, 그림 속 액자 안에 그려진 것에서 읽어낼 수 있다. 여성 미술가는 권위의 상징인 역사화를 그릴 수 없었고 누드 데생 수업에도 들어갈 수 없었다. 그림을 그리는 여성뿐만 아니라 그림 속 여성들조차도 이러한 사회의 제약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해부학적인 지식은 철저히 무시당한 채 그림을 보는 남성의 시선에 맞춰 그려진 여성의 몸은 이 시대에 명화로 불리고 있다. 이처럼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 계급, 여성이라는 제약을 이겨내고 많은 여성 미술가들은 자신만의 그림을 그렸다. '캔버스를

찢고 나온 여성 미술가들'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문화예술다리미 수강생들은 여성 미술가들과 그림을 보고 그들이 작품을 통해 어떤 것을 말하고 싶었는지,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는지 함께 읽어가는 시간을 가졌다. 그림을 읽어내는 작업은 수강생들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 주었고 강의의 마지막은 활발한 질의응답으로 마무리되었다.

참여자 소감

〈사과 사세요〉작자미상, 19세기에서 전혀 느껴지지 않았던 불쾌함이 〈바나나 사세요〉^{린다 노클린, 1972}에선 증폭되었다면, 여성이 성적 대상화되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던 내가 낯선 형태의 성적 대상화를 보고 놀란 탓일까? 그렇다면 왜 그런 짜증을 넘어선 불쾌감이었을까? 바나나에 대한 연민의 감정은 또 무엇이었을까?

이런 시선이야말로 남성의 시선이 아닌가? 여성의 누드는 그러려니 하면서 남성의 누드는 왜 불편한가. 명백히 비대칭적인 두 성이 대칭적으로 이미지화되었을 때 권력의 문제가 작동하는 것 같다. 권력을 가진 주체가 대상화된다는 것 자체도 낯설지만, 남성의 나체는 맥락을 가진 관계없이 에로틱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오히려 폭력적이라고 느껴진다. 여성의 나체에 대해서도 폭력적이라고 흥분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왜 나른하게 느끼고 있을 뿐인가. 〈사과 사세요〉를 여성이 찍은 거라면, 〈바나나 사세요〉가 남성이 찍은 거라면 달랐을지도 모르겠다. 재현 대상이든 창작자든 관람자든 모두 젠더에서 자유로울 수 없

을 것 같다.



작품의 기원을 바라보는 관점이 한 가지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다양하다는 게 좋았다. 작가가 그것을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작품은 작가로부터 떠나 많은 사람에게 읽힐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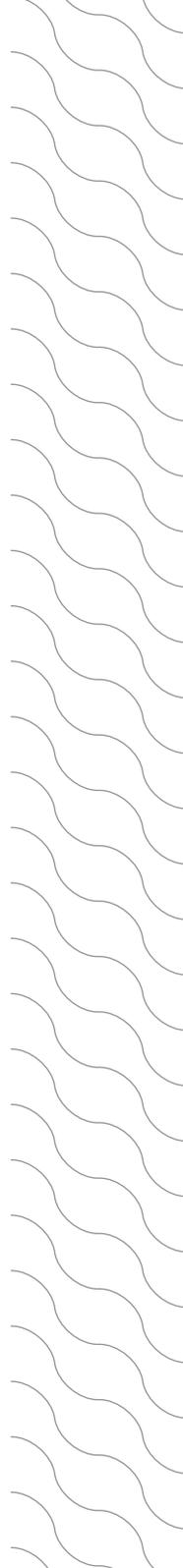
그런 의미에서 여성 신체의 한 '부위'만을 표현하는 것이 여성주의 시선에서는 불편할 수 있지만,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를 담을 때 인간이 아닌 존재는 '부위'로 표기되어도 자연스럽게 인간의 경우 어느 특정 '부위'만 쬐인 되었을 때 불편하게 느끼는 그 상태가 인간 중심적인 시각이 깃들여져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고등어 작가의 그림, 남성의 언어라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평소 생각해온 주제이기도 하다. 나의 사고, 아니 이 세계 자체가 가부장의 언어로 설계·해석된다고 느낀다.

나는 남성의 언어와 가부장의 언어를 같은 맥락의 동의어로 읽는 편이다. 그런데 동시에 남성의 언어라는 표현은 이분법, 흑백의 언어로 다가오기도 한다. 남성의 언어가 아닌 나의 언어를 갖는 것은 여성의 언어를 가져야 한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한다.

남성의 언어, 여성의 언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하면 내가 무언가를 왜곡하는 것일까?



그림의 주체가 객체가 되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시선을 방향을 틀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우리는 몸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고 그 욕구를 선명하게 발현하는 것 같다. 물론 나 역시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다.

누드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걸까? 특정 '부위'가 아닌, 그냥 신체, 몸 부분의 부분. 과거와 현재의 몸을 바라보는 시선의 왜곡을 다시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오늘 수업에서 비주류 관점에서 본 미술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이분법에 대해 자문해 봤다. 나는 여성주의적인가, 남성주의적인가. 생물학적 성별보다 주의를 붙는 이 데올로기는 훨씬 복잡하게 삶을 가로지른다. 최근 우연히 드라마를 보다가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용어를 접했는데 자폐증이라는 증상 자체에 여러 층위가 있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었다. '자폐' 자리에 여성, 동물 등 이른바 모든 비주류를 넣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포르노와 예술의 경계는 무엇일까?

문화예술에서 여성의 성적 대상화가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것을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훈련을 해 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세상의 기원>퀴스타프 쿠르베, 1972이라는 작품을 보면서도 예술과 외

설적 재현의 기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도 했다. 포르노와 예술을 이분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몸을 둘러싼 재현의 정치와 그 방식을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해석과 논쟁의 여지가 많은 창작물로서 시각예술을 경험할 수 있어 재미있었다.

장르별 읽기_영상 2022. 9. 21.

미투 이전과 이후로 영화를 보는 게 달라졌다

강지이

(마음에 들다) 영화감독

“미투 이전과 이후로 영화를 보는게 달라졌다.”

한 참여자의 이야기가 이 수업의 내용을 관통한다. 영화란 한 권의 책이라는 강연자 강지이 감독의 말처럼 영화를 써 내려간 시나리오를 읽으며 문화예술다리미 참여자들은 영화 비평에 대한 본격적인 연습의 시간을 가졌다. 시나리오 속 영화를 구성하는 시간, 공간, 이미지 그리고 대사라는 요소요소를 꼼꼼하게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작업을 통해 참여자들은 영화 읽기와 비평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몇 해 전 화제가 된 한국의 로맨스 영화를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다시 보기 했을 때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참여자들은 진지하고 열성적인 토론을 이어갔다. 평론에서 극찬한 작품이라 할지라도,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이라도 권위자나 다수의 말 대신 옳고게 자신의 시각과 생각으로 영화를 보는 것이 중요하

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참여자 소감

영화를 볼 때마다 생각할 시간 없이 질질 끌려다니는 기분에 영화 자체를 멀리하게 되었다. 공간과 시간이 달라지며 구성된 상황이 연속으로 이어지면서 멍하게 눈뜬 채로 감독의 의도를 주입받고 있는 건 아닌지 두렵다. <건축학개론>을 함께 살펴보며 성폭력일 수 있는 상황을 한 남자의 쓰라린 첫사랑으로 포장해 받아들이고 있다는 생각에 피곤함이 몰려왔다. 영화의 엄청난 영향력, 과급력을 고려할 때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영화 읽기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평론을 읽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믿으라는 감독님의 조언을 마음에 새겨본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 영상매체가 불편해져서 보지 않게 되었는데, 영상을 보지 않으니까 영상을 본 뒤 불편한 부분에 대한 비판적 시선 조차 가지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불편하고 화가 나는 것을 피하거나 침묵하는 대신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직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반응해야겠다.



몇 해 전 강사님과 팟캐스트에서 <영화로 이야기하기> 코너를 진행한 적이 있다. 강지이 감독의 추천 작품과 더불어 그 당시 신작을 다루었다. '벡델테스트'를 기본으로 여성주의 시각이 담긴 영화를 여성들

과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는 자리였다. 그때는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지만, 이제는 영화를 읽고 쓰는, 해석하는 자리에 있다는 생각에 새삼 무게감과 어려움이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영화는 시대와 문화 의미의 치열한 전투장이자 격전장이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읽고 쓸 수 있는 인식과 감수성, 나(만)의 시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영화는 씨앗과 같다는 생각을 했다.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싹을 틔우게 할지... 미디어의 바로미터를 세우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래본다.



영화는 글, 미술, 음악 그리고 과거와 미래를 소환하는 현재를 볼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미디어라고 생각한다.

영화를 표현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위해 사전 조사가 필수이듯 영화를 보기 전 영화제작 과정을 살펴보고 누구의 욕구와 시선으로 등장 인물이 대상화되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예전과 다른 영화 보기가 될 것 같고, 앞으로 영화를 보면 대단히 불편해질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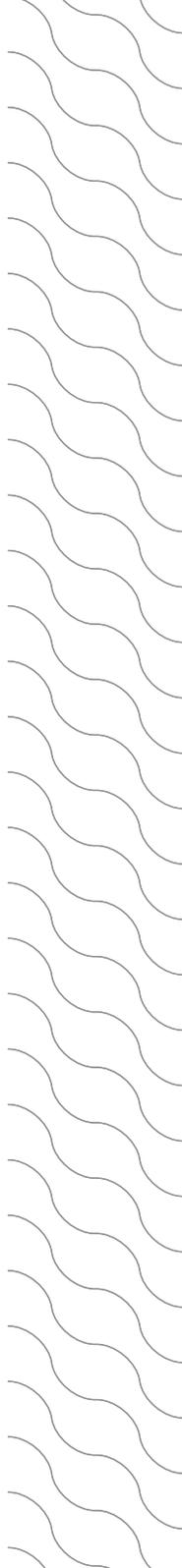
로맨스벨라라는 형식 속 숨은 판타지로 여성을 대상화한 <건축학개론>,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면서 당시의 정치 현실 등을 미화하는 <응답하라> 시리즈 등에 대한 분석을 들으며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다. 80년대 유년기를 보낸 나는 저녁만 되면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길

을 걷던 사람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묵념을 하던 기억이 생생하다. 밀레의 <만종> 같은 이미지와 IMF같은 비탄의 골짜기가 교차하는 정동이다. 가부장제라는 언어 구조와 그것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여성주의적 말하기가 어떻게 가능한지 고민하게 된다.



영화제작에 대한 기본적 설명과 함께 여성주의 시각에서 다시 보게 되는 영화 이야기가 새로운 영역에 관한 공부의 시작점이 된 것 같다.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미디어 등 편안하게 즐겨 왔던 것들이 불편하게 보이는 그 자체가 나의 성장이 아닐까 싶다.

영화에 대한 해석은 단지 영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관객의 반응이나 평론까지도 해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반대로 영화가 세상을 바꾸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특히 평론에 의존하지 말라는 말이 인상 깊었고, 평론 역시도 평론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요즘 조금만 성평등, 혹은 다양성의 가치가 들어가면 정치적이라고 지적하며 수용하지 않는 분위기가 한편으로 무섭다는 생각을 나누었는데 반발하는 사람들과 그 의견에 신경 쓰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말이 매우 공감이 됐다.



장르별 읽기_문학 2022. 9. 28.

파스텔톤의 표지에는 얼굴을 알 수 없는 가녀린 검은 머리의 여성이 있다

오혜진

문학평론가

“파스텔톤의 표지에는 얼굴을 알 수 없는 가녀린 검은 머리의 여성이 있다”

페미니즘 문학을 표방하는 작품들의 표지를 보며 수강생들이 추려낸 공통점은 대략 이렇게 요약되었다. 그리고 이 이미지가 곧 한국에서 ‘소비’되는 페미니즘 문학 그 자체라고 본다면, 한국의 페미니즘 문학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문화예술다리미 매체 강연 세 번째 시간은 ‘소수자 재현의 도전과 딜레마’라는 주제로 ‘문학’ 장르를 다시 보는 시간이었다. 강연자 오혜진 평론가는 강의 초반 현재 한국의 페미니즘 대두 배경과 페미니즘 문학에 대해 설명하고, 그 사례로 페미니즘 문학을 대표하는 한 작품을 자세히 분석했다. 어디에선가 들어본 직한 혹은 내가 겪어 본 듯한 일들을 풀어내 보편

성을 담보하여 독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서면서도 특정성을 상실한 현재의 페미니즘 문학은 과거 정치적이고 대의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있던 페미니즘 문학과 큰 간극이 있으며, 누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지극히 다의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고 작품 속에서 여성·소수자를 다루는 방식, 곧 ‘재현’의 윤리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오혜진 평론가는 “삶의 존재 방식이 여러 가지이듯, 선택이 합리적일 때도 비합리적일 때도 있다. 인간의 그 모순적 면모를 이해하는 것이 페미니즘이 할 일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시대의 다양하고 다의적인 페미니즘과 그 표현의 다양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권유했다.

참여자 소감

텍스트를 읽기 위해 우선 세상과 사람을 향한 감각을 버리고 다양한 징후를 읽어내기 위해 정신을 가다듬고 공부를 계속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더 치밀하고 아름답게 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다.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우선 피곤함이 몰려온다. 기분 좋은 피곤함이고 더 익히고 느껴야겠다는 결심도 함께다. 지금도 충분히 무해한 인생이고, 얼마나 더 치열해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그냥 마구 열정이 뻗친다. 너무 좋은 강의를 들은 후유증이다. ‘최승자’의 시와 ‘맥도날드 할머니’의 이야기는 나의 고백도 섞여있어서 마음이 더 쓰라렸다. 이들의 인생을 실패한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들의 의도를 무

시하고, 함부로 의기소침해지지 말아야겠다. ‘우에노 치즈코’와 ‘박유하’ 관련 얘기는 더 알아봐야겠다. 재연과 재현을 구분해 설명해 주신 건 앞으로 오랫동안 당사자성과 관련해 고민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다. 20대 여성의 페미니즘은 앞으로 어떤 모습의 실천과 담론 만들기로 나아갈까 궁금하다. 무조건 지지해야 할까? 지금은 선뜻 마음이 가지 않아 걱정이다. 무엇보다 신자유주의에 기댄 논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82년생 김지영』을 보며 마음 한켠 찢찢했던 구석도 정확히 읽혔다. 오늘 강의의 수확이 너무 많고 좋아서 술이라도 한 잔 해야겠다. 애써주시는 이끄미 선생님과 묵직하게 도끼를 날려주시는 강사님들에게도 감사드린다. 참 뿌듯한 하루여서 행복하다.



아직도 내 귓가에는 재현과 재연의 차이가 들리고, 가부장제에 오염된 페미니스트가 페미니즘 유토피아의 가능성을 엿보는, 불투명한 언어로 재현되는 사랑과 책임의 방식이 예술이라는 마지막 내용을 생각하고 있다. 재연이 어떤 맥락에서 무엇을 위해 시도되는지 사유하도록 만드는 것이 재현의 일이라는 이야기와 현실을 경유해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재현 없이 불가능한, 재현을 통한 새로운 세계, 미지의 가능성을 접촉하고 접속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힘을 생각한다. 재현의 윤리와 더불어 재현에 내포된 정치성, 즉 고통을 사회적으로 사유할 수 있게 만들고 시민 모두를 증언자 또는 목격자, 공동체의 책임 있는 당사자로 사유하고 주체로 만들 수 있는 재현은 어떻게 확보될 수 있

을까? 재현의 윤리와 정치성의 관계는 또 어떻게 분석하고 바라봐야 할까? 점점 더 생각이 많아진다.



시대와 상황이 달라지면서 정치, 문학, 예술이 재현에서 재연으로 또는 언어로 소비되는 경향이 시시각각 빠르게 변화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지향하는 페미니즘 라벨링을 떼었다 붙였다 하는 사람들. 페미니즘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정의와 자신의 위치성에 의해 배제되는 얼굴들, 혹은 얼굴없는 실체에 대한 생각이 큰 숨을 내쉬게 한다.



지금까지 모든 수업이 좋았지만 오혜진 선생님이 이야기 한 ‘소수자 재현의 딜레마’는 요새 고민하고 있는 질문과 맞닿아 생각할 거리가 많았다.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고유한 성격보다는 상호관적인 관계망 내의 위치라는, 누구나 어떤 위치든 채울 수 있다고 주장한 라캉의 생각이 떠오른다. 변화된 젠더와 섹슈얼리티 체계에 대해 실감하면서 집단과 담론의 차이를 넘어서는 페미니즘 정치가 어떻게 가능한지 생각하게 된다.



오늘 강의는 보편적인 사회에서 일반적인 절차 속에 나아가고 있는 여성으로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위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었다. 강의를 들으면서 글로 표현하기엔 조심스럽지만 ‘나는 참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했다.

장르별 읽기_연극 2022. 10. 5.

성평등 관점에서 연극을 비평하는 연습하기

김민조

연극평론가

김민조 평론가의 강연내용은 ‘1막. 지금, 페미니즘 연극’, ‘2막. 극장의 레와 젠더의식’, ‘3막. 비평연습’으로 구성되었다. 1막에서는 미투 혁명 이후 여성극, 여성서사, 여배극 등 페미니즘 관점의 연극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짚어봤고, 2막에서는 기존에 당연하게 여겨졌던 극장 의례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는 아니었는지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기존의 지배적인 젠더 각본을 비틀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 3막에서는 극단 신세계의 인기작인 <공주들>²⁰¹⁹⁻²⁰²¹을 짧게 감상한 후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사의 빠른 전개나 카메라 기법과 같은 독특한 연출, ‘김공주’를 개인이 아닌, ‘소녀상’으로 굳히는 장면 등에 대해 감동적이고 강렬했다는 평이 있었는가 하면, 위안부를 친진난만하고 유쾌하게 그려낸 부분, ‘구멍’이라는 용어, 입체적인 현대사를 납작하게 표현한 점 등은 불편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펜워크숍 2022. 10. 19.

참여자 소감

12공주들의 구멍, 듣고 말하고 보는 입·출구가 따로 있을까? 말하는 이는 많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고, 당사자의 목소리는 허공으로 흩어져 사라진다. 정치, 사회구조, 미디어 속에서 수많은 구멍의 목소리는 당사자성을 흔들고 왜곡된 채로 굳어지게 한다. 그 당사자가 나임을 알 수 있는 구멍을 보며, 나는 시선이 흔들리는 주인공이 되었다.



90년대 생애 처음 본 연극인 추송웅의 모놀로그 〈빨간 피터의 고백〉 이후 연극과 무대를 좋아하게 됐다. 하지만 장소와 시간의 문제로 다른 매체에 비해 많이 접하지 못해서 그랬는지 동시대 국내 연극의 변천사를 본 것 같아 흥미진진한 시간이었다. 창작물과 관객이 가장 가깝게 만나는 연극은 그만큼 무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실재감이 크고 그에 따른 논란도 크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함께 본 연극 〈공주들〉은 삶의 다양성을 표현하는 기표들을 어떻게 생산하고 소비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축으로 여성서사에 대해, 재현의 윤리에 대해, 그리고 무대가 갖고 있는 장소의 확장성에 대해 풍부한 질문을 던져 주었다.

각자의 고민이 새로운 흐름으로

이소정

프리랜서 기자

색색으로 물든 아름다운 단풍을 보고 마냥 기뻐하기엔 유난히 가슴 아픈 소식이 많은 가을이었다.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전주환이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SPC 제빵공장에서는 20대 초반의 여성 노동자가 열악한 근로 환경 탓에 사망했다. 여성가족부는 수많은 국민과 전문가, 여당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폐지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 어쩌면 시대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은 기시감이 드는 2022년,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삶은 더 고립되기 쉬워졌다. 예상치 못한 슬픔 앞에서 일상은 의미 없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 시기를 견뎌내기 위해서는 지금 내 눈앞의 행복을 기꺼이 누리고, 변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가을의 중턱인 10월 19일 수요일, 전북대학교 캠퍼스의 한 강의실

에서 2022 성평등 문화예술 비평학교 ‘문화예술다리미’ 심화과정 ‘펜 워크숍’이 열렸다. 여름의 뜨거운 기운이 아직은 물러나지 않았던 9월 초 무렵에 시작된 ‘문화예술다리미’ 심화과정이 어느덧 중반을 지나 있었다. 참여자들은 그동안 시각, 영상, 문학, 공연 등 분야별 강의를 들었고, 성평등 시각으로 예술작품을 다시 보며 각자의 질문을 마주하며 고민을 발전시켜나갔다. 저마다 배움의 과정을 통과하고 겪어내는 동안 시간은 흘러, 곧 마지막 단계인 비평문을 쓰고 발표하는 과제만을 앞두고 있었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앉았다

참여자들과 멘토, 각 재단 실무자까지 포함하여 총 13명의 인원이 마주 보고 앉았다. 펜 워크숍의 강사는 송원 대표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배우다컴퍼니가 맡았다. 대부분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참여자 전체가 만나는 것만으로도 귀한 자리였다. 송원 강사는 일방적인 강의 형식보다는 토론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자 했다.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첫 번째 활동은 누구나 알법한 속담에 빗대어 각자의 경험과 일상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약간은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지만, 이야기를 시작하자 작은 말에도 웃음이 터졌다. 한자리에 모여 있지만 이곳에 오기 직전까지 일상의 풍경은 제각각이었다. 삶을 보살피는 기술을 익히기 위해 최근 베이킹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베이킹 도구가 생각보다 값비싼 것을 깨닫고 ‘배보

다 배꼽이 더 크다’고 느꼈다는 사람, 얼마 전 한 살 반 조카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심정이었다는 이, 한 바탕 바쁜 일이 지나고 나니 갑자기 아이가 아파서 쉴 틈이 없었는데 오늘 워크숍에 나와 ‘취구멍에도 별들 날이 있다’고 느꼈다는 사람도 있었다. 송원 강사는 각자가 지니고 온 이러한 감각들을 잘 풀어내 보자는 말로 워크숍의 문을 열었다.

당신이 감상한 지역 문화예술작품을 소개해주세요

본격적인 시작과 함께 한 활동은 최근 감상한 지역 문화예술작품을 스케치북에 적고, 다른 이들에게 소개하는 것이었다. 작품의 제목을 쓰고, 그 옆에 자신이 주관적으로 지은 부제도 적어보기로 했다. 한 참여자는 소설 『금과』 김혜숙, 다산책방, 2022를 소개하고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는 부제를 붙였다. 이 소설의 제목인 ‘금과’는 실존 인물인 ‘허금과’이다. 그는 여성이 무대에 설 수 없던 구한말 시대에 독보적 소리꾼으로 활동한 여성 광대였다. 참여자는 이 소설을 읽고 ‘허금과’가 궁금해져 그의 흔적을 만나러 고창에 직접 가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극 <침부파일_서식01_이력서> 극단 배우다컴퍼니, 2021-2022를 소개한 참여자는 ‘존버’라는 부제를 붙였다. 연극을 통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 예술인들이 분투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랑스럽기도 하고 동시에 안타깝기도 해서 눈물을 쏟을 뻔했다는 감상평을 전했다.

《2022 전주문화제야행》 문화제정·전라북도·전주시 주최, 문화예술공작소 주관을 소개

한 참여자는 ‘2022년의 마당놀이’라는 부제를 붙였다. 한옥마을에서 펼쳐진 전통 음악공연은 기대했던 것보다 수준이 높았는데, 그보다 더 인상 깊었던 점은 공연을 즐기는 객석의 적극적인 분위기였다며 무대와 관객이 소통하며 상호작용하는 모습에 감탄했다는 소회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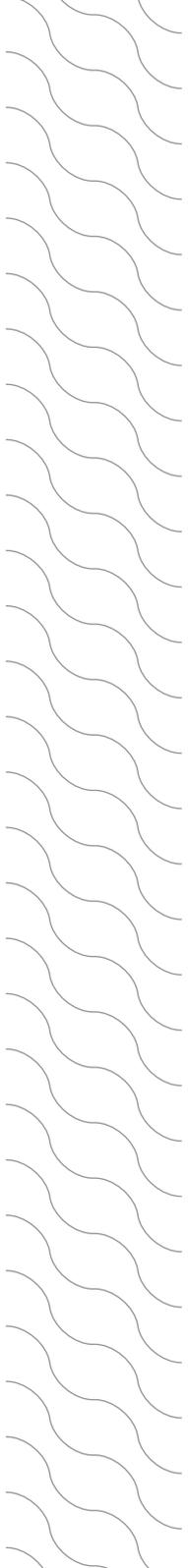
참여자들은 이외에도 각자 관람한 지역 문화예술작품의 소개와 더불어 요새 즐겨 보는 예술작품, 그 작품에서 감명 깊었던 점과 불편하거나 고민이 생겼던 지점까지 두루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역의 예술작품과 흥미롭게 본 작품 그리고 불편한 지점에 대해서

다음으로는 3~4명씩 조별로 모여 아래에 나열된 세 가지 질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약 20분 정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 1. 내가 감상한 지역 문화예술작품을 소개한다면 무엇인가?
- 2. 흥미롭게 본 문화예술작품을 소개한다면 무엇인가?
- 3. 작품에서 불편함을 느꼈다면, 아직 보지 않은 이에게 어떤 당부
의 말을 할 것인가?

한 조에서는 세 질문의 공통점으로 ‘모두 관점이 있다’는 점을 꼽았고, 차이점으로는 ‘세 가지 질문의 깊이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요즘 예술작품의 소개를 보면서, 콘텐츠는 다양하지만 깊이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아쉬웠다는 점을 언급했다. 다른 조에서는 내



가 사는 지역에 대한 경험과 애정이 지역 작품에 대한 고유한 관점을 만들어 낼 수 있음에 관해 이야기했고, 또 다른 조에서는 비평 안에 위의 세 가지 질문이 모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으며, 차이점은 ‘비평가가 작품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고민할 때 생길 것 같다고 했다.

조별로 토론했지만 결론이 통일되지 않거나 다르게 느끼는 부분이 있어 같은 조에서라도 누군가가 발표하면 또 다른 누군가가 의미를 덧붙이기도 하면서 전체적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비평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n개의 답변

이후 송원 강사는 웹진 《연극in》의 한 페이지를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같은 질문에 대한 25명의 답변이 적혀있었다.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비평은 무엇을,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나요? 비평은 항상 창작자 편이어야 할까요?”

답변을 한 사람은 총 25명이고, 그중 14명은 비평가이자, 창작과 비평의 경계에 서 있는 사람, 나머지 11명은 창작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이었다. ‘문화예술다리미’ 참여자들은 25개의 답변을 돌아가며 모두 소리 내어 읽었다. 당연할지 모르지만 모든 답변이 제각각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에 비슷해 보이기도, 또 전혀 달라 보이기도 했다.

참여자들은 예술 비평에 대한 25개의 답변을 통해 비평이 하나의 정답으로 단일하게 정의될 수 없음과 개개인의 입장과 관점에 따라 아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송원 강사는 각자가

나름의 답을 가지고 비평을 해나갈 수 있고, 또는 비평을 해나가면서 정의를 찾아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역 내 예술 비평의 현실

지역에서 다수의 연극을 만들고 문화기획을 하며 활발하게 활동 중인 창작자이기도 한 송원 강사는 지역에서 30여 편 넘게 작품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평가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자기 경험을 나누며, 지역에 문화예술 비평이 부재한 현실을 이야기했다. 비평을 듣고 싶어도 들을 방법이 없는 그는 공연을 관람한 자신의 가족에게 평가를 묻거나, 다른 배우의 지인들이 공연을 어떻게 봤는지 물어봄으로써 피드백을 얻는다고 했다. 반면에 서울의 대학로에서 공연했을 때 다양한 비평을 받을 수 있어서 기쁘고 반가웠던 경험을 떠올리며, 지역에도 그렇게 활발한 비평의 장이 만들어지기를 더욱더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송원 강사는 지역의 예술작품이 상당 부분 보조금의 지원을 받아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관람 이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내는 장이 만들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예술작품과 관객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유기적 관계이므로 지역 예술 비평의 생태계를 만드는 일은 지역의 예술작품이 변화해나갈 방향을 만들어가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

성평등 시각은 왜 필요한가?

워크숍은 질문의 연속이었다. 성평등 시각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할까? ‘대한민국 성평등 가이드북’에 따른 성평등의 정의를 화면에 띄워 함께 봤다. 성평등이란 남성과 여성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인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성평등 정책은 남성과 여성이 모두 인간의 존엄성을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명시하고 있었다. 흔히들 성평등이 여성만을 위한 것이라 오해하지만, 성별을 막론하고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국가가 내린 성평등의 정의에도 구체적으로 적혀있었다.

더불어 백텔 테스트¹⁾와 관련한 짧은 영상도 시청했다. 여성 캐릭터가 활을 쏘는 모습이 나오는 <메리다와 마법의 숲>과 <헝거 게임> 개봉 이후 양궁 수업에 참여하는 여자아이들의 비율이 증가했다고 한다. 영화는 가상의 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지만, 이렇듯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술작품 또한 변화해야 하며, 이미 사회에 만연한 차별의 언어들에 예술작품 속에서 읽어내기 위해서는 성평등 시각이 필요하다.

여전히 풀리지 않은 현재 진행형 고민

매회 수업이 끝날 때마다 그룹 채팅방에는 참여자들의 후기가 올라왔다. 그중에서 가장 나누고 싶은 문장이나 핵심 단어, 혹은 여전히 풀리

1) 영화 내용에서의 성차별 현상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테스트

지 않는 고민이 담긴 문장을 뽑아 나누었다. 한 참여자는 처음 성평등에 대해 들었을 때, 남성과 여성을 이분법으로 나누는 방식에 대한 우려가 들었음을 고백했다. 여성주의적으로 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전히 고민이 된다고 했다. 다른 참여자는 차이가 차별을 만들어내는 지점을 이야기했다. 평등에 대한 감각과 성인지 감수성이 중요하며, 주어진 틀을 깰 수 있는 것이야말로 예술의 전위적인 면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한 참여자는 ‘소수자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꺼냈다. 지역의 척박한 환경을 고려할 때 자원이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은 존재론적인 소수자성을 지닐 수 있음을 말했다.

다른 이의 고민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면서 참여자들은 다양한 고민을 나누었다. 당장 해결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용기 내어 고민을 꺼냄으로써 같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함께 한 시간은 짧았지만, 고민의 여운은 길었다. 우리는 각자의 삶 속 장면에서 이날 고민에 대한 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 답들은 결국 우리를 나아가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역의 문화예술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를

‘문화예술다리미’ 참여자들은 앞으로 지역의 예술작품을 관람한 뒤 각자의 관점으로 비평문을 작성하고 11월 16일 진행될 공유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총 세 개의 조로 나누어 문학, 영상, 전시 중 각자 원하는 매체를 선택하고, 조별로 같은 작품을 보기로 했다. 문학 분야 작품

은 제1회 고창신재효문학상 수상작인 고창 출신 김해숙 작가의 소설 『금과』이며, 영상 분야 작품은 전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최진영 감독의 영화 <태어나길 잘했어>, 전시는 전주문화재단이 전주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 여성 예술가들의 작품을 선보인 《2022 도래할 풍경_매일 매일 내일展》이다.

이날 송원 강사와 참여자들은 3시간에 걸쳐 비평과 성평등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 각자의 키워드가 서로 연결되고, 결을 달리하기도 하며, 얽히고설켜 표현되었다. 각자의 내면에서 생긴 질문들이 서로에게 가닿아 실마리를 얻고, 또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내는 순간들이 위크숍을 통해 관찰되었다. 진지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는 동안 미간에 새겨지는 주름은 이들의 고민의 무게가 절대 가볍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했지만, 그만큼 앞으로 이들이 어떤 성장의 과정을 거치며 어떤 시각을 기를 것인지 궁금하게 만들기도 했다. ‘문화예술다리미’ 참여자들의 성평등 예술 비평이 지역문화예술계에 새로운 흐름과 변화를 끌어낼 수 있기를 바라며 이들의 행보를 응원해 본다.

성평등 문화예술비평학교

문화예술다리미 2022 비평집

2부

읽고 쓰기

s t e a m

소리꾼 허금파, 벽을 두드리다

소설 『금파』, 김해숙, 2022

김해영

지역을 스토리텔링 하자는 것은 단지 지역의 배경만을 혹은 지역 연고의 인물만을 담자는 것은 아니다. 지역을 배경으로 어떤 인물을, 어떤 주제로, 어떤 관점에서 담아낼 것인가 등 작품 세계와 상관있다.

잘 짜여진 서사는 지역과 시대를 초월해 독자들에게 널리 오랫동안 향유된다.

- 『칸과 흙의 세계로 바라본 전복』, 김은혜, 곰곰출판, 2022, p76

여성 소리꾼 허금파, 논픽션과 픽션의 사이

“나는 나요. 누구의 뒤를 밟지 않고 오롯이 나로 남을 거요”, “대쪽 같은 소리꾼”, “진정한 소리꾼”, “빛나는 藝人예인”이라는 호평 일색인 제 1회 신재효문학상 수상작 소설 『금파』의 표지 일러스트 hyekang, 다산책방는 개인적으로 아름답다는 느낌보다 거부했다.

옥색 표지 속 커튼을 살며시 밀며 서 있는 컴퓨터 미인처럼 선명한 이목구비와 입술을 지닌 여인 뒤로 매화꽃 가지가 창을 내었다. 쪽 찐 머리의 나비 떨잠과 여인 주위를 맴도는 나비들 그리고 여인의 시선이 소리꾼의 이미지보다 기녀의 이미지로 더 다가왔다. 나는 책을 읽는 동안 표지를 뒤집어 들고 다녔다.

금파의 흔적을 찾기 위해 찾은 고창 동리정사, 그리고 판소리 박물관 2층으로 올라가는 로비에 마주한 노년의 ‘만정 김소희 국창’의 날카롭고 힘 있는 눈빛이 소리꾼의 이미지로 더 적절할 것 같다는 개인적 편견을 가져 보았다.

여성을 주제로 한 문학 작품에 재현된 여성의 한정된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려졌다. 아름다운 치마저고리, 붉은 입술, 처연한 눈빛, 자료 찬듯한 이목구비. 같은 모습의 여인들이다.

언젠가 부안 매창테마관에서 매창 초상화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는 관람객의 이야기를 우연히 들은 적이 있다.

“매창이가 너무 안 예뻐. 당대 최고 문인이었던 허균이나 유희경이 좋아할 만한 모습이 아니야. 초상화를 그리려면 아름답고 예쁘게 그려야지. 늙어빠진 매창이라니, 뭐 보여줄 만한 가치가 있어?”

매창은 분명 기녀이긴 하였으나 58수의 한시 작품이 실린 『매창집』을 남긴 문인이다. 쓰개치마를 입고 있는 매창보다는 무언가 집중하고 고민하는 전시관의 초상화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부안의 매창은 ‘조선을 매혹하는 사랑과 이별의 여인’, 전주의 허산

옥은 ‘조선의 마지막 권번 기생’으로, 고창의 진채선은 ‘대원군이 사랑한 여인’ 또는 ‘스승과 제자의 금지된 사랑’으로만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 곁에서 지속적으로 함께할 여성 인물들에 대한 동시대적 감각을 담은 ‘시각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1회 신재효문학상을 받은 김해숙 작가의 소설 『금파』는 실존 인물 허금파^{1866?-1949?}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

과거 판소리는 남성만이 부를 수 있었다. 금파는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소리판에 금기를 깬 최초의 명창 진채선 이후 두 번째로 명창의 반열에 오른 여성 소리꾼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연희극장 협률사 무대에 올라 창극 〈춘향전〉의 월매 역을 맡으며 최고의 인기를 누렸지만, 예술 활동이 절정에 이르던 시기에 무대 아래로 내려왔다. 이후 자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작품 속 금파는 소리에 대한 열정을 가득 안고 부모와의 천륜도 저버린 채 고창 동리정사에 발을 들여놓는다. 여성 소리꾼으로 살아가고픈 금파에게는 어느 것 하나 호락호락하지 않다.

봉건적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여성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소리를 배우고 살기 위해 ‘미친년’, ‘독한 년’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 금파는 전혀 두렵지 않다.

“내가 원하는 세상은 내가 만들면 돼. 싸워서 이길 거야.”

“오겠지, 오는데, 난 기다릴 수 없어. 내가 원하는 세상은 내가 만들

면 돼.”

- 『금파』, 김해숙, 다산책방, 2022

금파는 초반 자기 주도적이며 도전적인 여성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금파의 반동 인물인 보수적 남성 양반 주영감과 이영감은 지속해서 사건을 만들고 농락과 시련을 제공한다. 하지만 후반부의 급격한 구원서사는 조금은 당혹스러웠다. 금파가 시련의 파도를 스스로 이겨 내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남성 인물인 양반 소리꾼 이승윤, 스승 김세종, 무릇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서술한다. 소설이기에 ‘사랑’이라는 주제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금파의 시선을 쫓다가 후반부 불현 전개되는 사랑 서사가 개인적으로는 집중도가 떨어졌다. 이 소설의 첫 도입부와 후반 마지막 부분은 남성 주인공 승윤의 회상으로 전개된다. 소리꾼에 대한 욕망을 지닌 당당한 캐릭터가 사라지고 감성 가득한 금파가 자리 잡는다. 금파의 사랑과 구원서사는 신파를 기대하는 독자를 위한 지나친 배려가 아니었는가 싶다.

지역문화 콘텐츠, 무엇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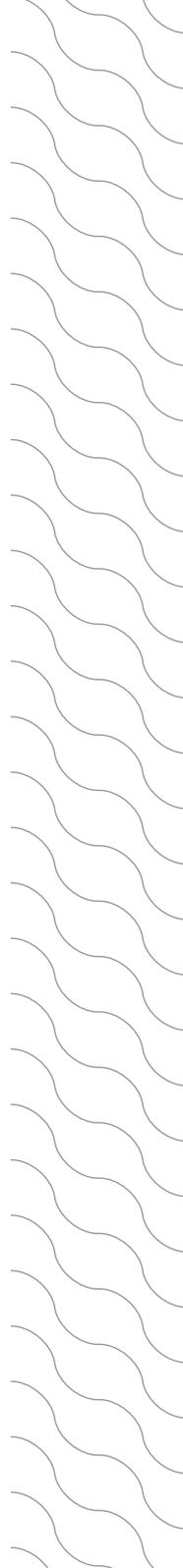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판소리 판에서 ‘최초’라는 수식어를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을까. 고창 판소리박물관에는 여성 명창을 소개하는 글귀가 이렇게 적혀있다. ‘고창은 진채선을 필두로 허금파, 김여란 등 여성 명창의 보금자리가 되었고, 김소희 등의 걸출한

여성 명창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박물관에서 허금파는 이 글귀에 언급된 세 글자에서만 보인다.

오늘날에는 남성 소리꾼보다 여성 소리꾼의 수가 더 많고 무대도 더 활발하다. 금파는 ‘조선의 마지막 소리꾼’ 보다 진채선 이후 여성 판소리계의 물꼬를 트고 맥을 이어준 인물이다.

진채선의 고향 고창 심원에는 9월 1일 ‘진채선의 날’이 있다. 2022년 두 번째를 맞이한 진채선의 날을 9월 1일로 정한 이유는 1898년 9월 1일 여성도 교육을 통하여 능력을 발휘하고, 그 능력으로 자신의 생계를 꾸려나간다면 남성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다는 여성의 자유선언인 「여권통문」을 발표한 날에서 가져왔다고 한다. 날을 정하고 스토리텔링을 담아냄에 있어 무엇을 어떻게 담아낼지 기대와 궁금함을 가져 본다. 대원군과 신재효 사이의 서사보다 남성의 무대에서 당당한 소리꾼의 길을 개척한 정신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한다. 고창과 판소리, 여성 명창, 고창지역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동시대적 감각으로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꿈꾸었고 도전하는 소리꾼 허금파, 그녀와의 만남과 발견은 여러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동리정사의 여성 소리꾼들이 어른거렸고, 판소리박물관의 몇몇 불편한 텍스트들이 눈에 들어왔다. 판소리 자체가 보수적이고 향유적 문화의 범주이어서인지 여전히 답답한 문구들이 가득했지만 그래도 금파로 인해 지역 여성 예술인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었다.



부안 매창공원 입구에 여성 소리꾼 자매 이화중선의 동생 이중선의 무덤이 있다. 금파를 찾다가 알게 된 여성 소리꾼 이중선의 무덤이 새롭게 다가왔다. 금파는 지금 고창 어디쯤 외롭게 누워 있을까? 금파와의 만남과 발견을 제안해 본다. 당당한 소리꾼으로 소리를, 인생을, 세상의 벽을 두드린 예술인으로 지금 우리가 허금파를 불러본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여성소리꾼 금파, 허금파

소설 『금파』, 김해숙, 2022

지산

판소리에 대한 나의 첫 기억은 어린 시절 친할머니의 노동요 한 가락이나 명절 TV 방송으로 시작한다. 나에게 국악, 판소리는 명절에나 들리는 그저 지루한 (전통)음악으로 평상시 입지 않는 한복만큼이나 일상과 거리가 멀다. 오래전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명절 방송도 잊힌 2022년, 여성 명창 ‘금파’가 나를 부른다. 판소리의 고장, 동리정사가 있는 고창으로.

김해숙 작가의 장편소설 『금파』¹⁾는 제1회 고창신재효문학상 당선작이다. 동리 신재효 선생²⁾은 조선후기 판소리의 이론가³⁾, 개척자, 후

1) 『금파』, 김해숙, 다산책방, 2022

2) 신재효는 판소리를 배우고자 하는 수습장자들을 모아 판소리전문학교를 세웠다. 동리정사 지구 내에 사랑채, 행랑채, 연못과 정자 등을 조성하고, 숙식을 같이하며 판소리를 교육·수련·공연·평가하는 판소리 생활문화 공동체를 만들었던 것이다. 동리정사는 최초의 사회교양적 차원의 판소리 교육을 실시했던 한국판소리교육의 산실이라 할 수 있다. 신재효는 최초의 여성명창 진채선과 허금파 등 여자도 판소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출처: 고창 판소리 박물관

원가로 자신의 호를 따 동리정사판소리 전문학교를 세우고 전국의 판소리 명창들을 모아 후학을 양성하고 특히 여성도 판소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파』는 고창 신재효 동리정사 출신의 두 번째 여성 소리꾼 ‘허금파’에 대한 이야기다. 1902년 대한제국 최초의 극장 ‘협률사’에서 최초로 공연한 여성 소리꾼 ‘허금파’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장편소설이다. 원제는 ‘비비각시’였는데, 작가는 ‘비비각시-유랑녀때돌아다니는 여자’에 착안했다고 한다. 금녀의 영역 판소리, 여자는 소리를 할 수 없었던 조선 후기, 고창 동리정사 출신의 진채선에 이어 여성으로서 두 번째 판소리 명창이 된 선구자 허금파의 삶을 그려낸다. 금파는 오직 소리를 배우기 위해, 천한 신분^{하층민} 출신, 판기, 후처, 나이 많은 유부녀 등도 마다하지 않고, 남성 중심의 소리판에서 소리꾼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매진한다. 뛰어난 예인으로 자신만의 소리와 꿈을 위해 오롯이 던진 삶을 보여준다. 처음엔 책의 제목으로 원제 ‘비비각시’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했으나, 소리꾼 금파의 삶을 따라가며 그녀를 알게 된 후, ‘금파’ 그녀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도 좋았다.

3) 신재효는 「춘향가」, 「심청가」, 「박타령」, 「토별가」, 「적벽가」, 「변장쇠가」의 판소리 여섯마당을 골라서 그 사설을 개작, 체계적인 구성을 갖추게 하였다. 또한 「춘향가」를 남창과 동창으로 구분하여 어린 평대가 수련할 수 있는 대본을 마련하기도 하여, 판소리의 다양화를 시도하였다. 「광대가」를 지어서 판소리의 이론을 수립하였는데, 인물·사설·득음(得音)·너름세라는 4대 법례를 마련하였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신재효(申在孝)

낮설지만 반갑고 귀한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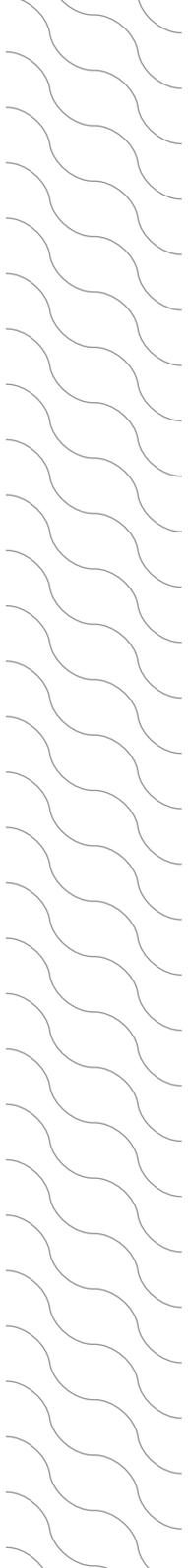
2022년 가을, 소설 『진채선』과 『금파』를 읽다 무작정 고창으로 향했다. 노란 은행잎이 수북한 동리정사 사랑채 앞에는 소리판이 벌어져 있었다. 금파의 그녀들-여성 판소리 버스킹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춘향가의 〈쑥대머리〉와 토끼전의 〈수궁가〉, 〈홀로 아리랑〉 등 그녀들의 발랄한 개량한복 만큼 흥겨운 가락은 나를 여성 판소리 선구자들인 진채선과 금파에게 데려다준다. 금파가 소리꾼으로 힘겨울 때마다 마음을 다지며 거닐었던 모양성을 따라 걷는다. 그녀의 소리에 대한 꿈만큼 높고 푸른 하늘 아래, 저멀리 김천에서 고창까지 오직 소리를 배우겠다는 일념으로 소리 스승을 찾아 동리정사에 찾아온 금파였다. 동리정사의 문전박대와 여성 소리광대에 대한 온갖 비하와 멸시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소리의 꿈을 놓지 않는다. 소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당당히 현실에 맞선 그녀에게서 여성 소리꾼의 계보와 역사를 잇는 예인의 뛰어난 재능과 기개, 주어진 운명과 시대에 불화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도전과 용기를 만난다.

금남의 영역, 남성위주의 판소리에서 최초로 여성 명창이 된 진채선은

“이 나라의 여자 소리 광대는 없느니라.” 라는 장벽에

“제가 시작하면 될 것입니다.”

- 『진채선』, 이광규, 밝은세상, 2020, p77



라고 당당히 맞선다. 조선의 두 번째 여성명창 금파는

“너 같은 여자가 소리를 할 수 있는 것도 다 진채선 덕분이잖아.”

진채선이 먼저 연 판소리의 길을 쫓지 않고, 그녀의 달비를 태우며

“나는 나요, 누구의 뒤를 밟지 않고 오롯이 나로 남을 거요.”

- 『금파』, 김해숙, 다산책방, 2022, p36, 44

라며 자신만의 소리의 삶을 개척한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 왜 안쓰러워요. 잘된 거지.”

“결코 뜻을 굽히고 싶지 않았다. 밀리고 싶지 않았다. 꺾이고 싶지 않았다.”

- 『금파』, 김해숙, 다산책방, 2022, p60, 65

금파는 여성에게 강요된 운명에 저항하며 새로운 세상을 앞서 걸어간다. 진채선과 금파, 그녀들의 길 뒤에는 원각사 및 협률사의 창극공연에 참가한 강소춘, 일제 강점기 최고의 여성 명창 이화중선^{1898~1943}, 거대 성음의 여성 명창 박록주^{1906~1979}, 춘향가를 완벽하게 소화해낸 최승희, 박초선 등을 길러낸 김여란 명창^{1906~1982}, 창극 춘향모 역의 당대 제일인 박초월 명창^{1917~1983}, 해방 이후 최고의 성음과 예술로 국

창의 반열에 오른 김소희 명창^{1917~1995}이 있었다. 또한 판소리계의 노벨상과 같은 동리대상은 2022년 올해로 32회를 맞이하는데 지금까지 동리대상을 수상한 여성 명창은 17명⁴⁾이었다. 판소리는 입문과 스승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입문 후 훌륭한 스승 아래, 전승형의 습득과 득공 즉 득음의 경지로 명창이 탄생된다고 한다. 소설 금파를 따라 낫설지만 귀한 여성 판소리의 세계를 만난다.

성차별적 사회에 반란을 일으키는 여성들의 언니-잡년, 독한 년, 미친년들의 언니, 금파 오랫동안 성차별적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이었던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에 대한 비하와 혐오언어가 만연하다. 생각해보니, 내게 판소리에 대한 흥미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중 하나가 판소리⁵⁾사실에 드러난 성차별적 언어도 한몫하는 듯하다. 성차별 이데올로기는 성별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며 사회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 주장한다⁶⁾. 성차별 언어는 그 자체로 성차별이며 동시에 성차별을 존속시키는 도구로써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성차별 언어는 성별 고정관념여자는.../남자는...으로 여·남의 역할, 외모, 속성으로 차별하고 여성을 성적대상화, 비하, 모욕, 혐오한다. 소설에서 금파는 행실이 부정하다는 멸시의 뜻으로 주변으로부터 ‘잡년’이라 호명된다. 금파는 하

4) 동리대상은 1991년부터 진행되었고 총 32명의 명창이 수상을 하였다. 그중 여성 명창은 총 17명이다. 김소희, 장월중선, 오정숙, 성우향, 박승희, 성창순, 남해성, 이일주, 안숙선, 조소녀, 최승희, 이명희, 신영희, 정순임, 김영자, 박계향, 박양덕 명창이 수상하였다. 출처: 고창 판소리 박물관

5) 『여성연구 103호』 이수연·이혜림 「성차별 언어 접촉 경험의 성별효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층민 여성으로 소리광대가 되기 위해 기녀가 되는 것도, 첩이 되는 것도, 유부녀가 되어 늦은 나이에 소리를 배우는 것에도 두려움이 없다. 그녀는 여성에게 허락되지 않는 판소리 세계의 견고한 성차별적 문화와 남성카르텔에 균열을 낸 선구자였고 그런 의미에서 ‘잡년’이라는 명칭은 역사적 전유를 사유하게 한다. 2011년 캐나다의 경찰관이 ‘성폭력을 당하지 않으려면 여자들이 슬릿⁶⁾처럼 입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잡년들의 시위 ‘잡년행진’이 시작되었고 국내에서도 이어진 ‘잡년행진’은 세계적으로 번지는 성평등 시위가 되었다.

성차별사회에서 잡년, 미친년, 독한 년이 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금파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오나 저는 몸을 파는 년이 아니라 소리하는 년입니다.”

“기생주제에 말이 많구나!”

“어엿한 소리꾼으로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저는 여자로 태어나 소리를 한다는 게 원망스럽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왜 여자만 이래야 합니까? (중략) 하지만 그들이 받는 제안은 부러움이 되고 여자들이 받는 제안은 부끄러움이 되지요?”

- 『금파』, 김해숙, 다산책방, 2022, p47, 173

라고 말한다. ‘독한 년’은 ‘독하고 모진 기운이 있다’는 뜻으로 여자

6) slit: 1. 난잡하게 놀아먹는 계집, 잡년. 2. 지지분하고 게으른 계집 출처: 네이버 어학사전

가 순하지도(착하지도) 순종적이지도 않고, 자신을 주장하거나 자신만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행동할 때 호명된다. 즉 금파는 동리정사의 험난한 소리입문 과정과 배움의 역경, 소리 스승의 냉대에도 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양반의 성폭력과 온갖 차별에도 굴하지 않고 여성 소리꾼으로, 저항하는 독한 년으로, 자신의 꿈을 따라 소리의 길을 간다. 예인으로서의 뛰어난 재능과 꿈을 펼친 자랑스런 잡년, 독한 년, 미친년 금파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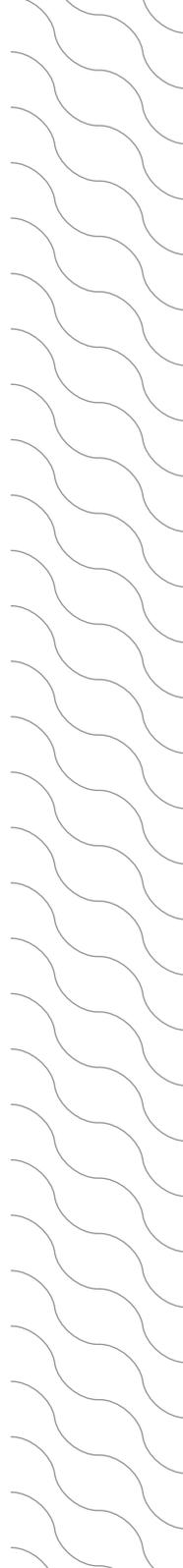
“금파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었고, 경계하며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절대 쳐다보지 않았다. 참을 수 없을 때는 곧바로 달려가 따졌다. 뺨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잘못된 점은 짚어주어야 했다.”

“미친년 미치지 않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 나도 미치지 않고 양전하게 살고 싶다고. 그런데 주어진 조건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어매처럼, 아버지처럼 살아?”

“난 기다릴 수 없어. 내가 원하는 세상은 내가 만들면 돼.”

- 『금파』, 김해숙, 다산책방, 2022, p26, 65

성차별 사회의 반란의 길을 여는 잡년, 독한 년, 미친년들의 언니, 금파.



오래되고 진부한 만남

작가에게 아쉬운 것은 금파를 뛰어난 재능으로, 소리를 위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시대와 불화하고 저항하는 예인으로, 여성 판소리꾼으로 그녀의 삶을 중심에 두고 더 입체적으로 재현해 내지 못한 부분이다. 성별 정형화 된 책의 표지 만큼이나 승윤과의 지나친 사랑서사, 그리고 승윤을 둘러싼 여성인물들 간의 관계, 재현된 이미지 등이 이 책의 흥미를 떨어트린다. 책 표지에 예인보다는 기방의 예쁜 기녀의 모습으로 재현된 금파, 승윤과의 사랑의 나비뿔잠을 꿸고 있는 금파가 아니라, 그녀의 소리에 대한 기개를 담은 부채를 넣었다면 어땠을까? 예인으로서의 성장과 삶이 중심이 되면 그녀의 목소리가 더 생생히 살아 독자에게 전달되었을 것이다. 금파는 죽을 때까지 소리와 함께 살다 죽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소리하는 사람의 처지를 바꾸고 멸시와 조롱의 일상이 되는 대상에서 존경의 대상이 되고 싶다고 했다.

소설은 1800년도 후반 조선후기에서 대한제국, 일제강점기까지의 혼란과 역동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조선후기 잦은 전쟁과 양반층의 부패와 몰락, 대한제국의 수립, 최초 현대식국립극단 협률사, 원각사를 배경으로 여성 소리명창 허금파를 통해 그녀의 삶을 상상하고 판소리의 세계를 그려낸다. 오래되고 진부한 남성중심의 성차별적인 판소리 세계와 문화는 소설 속 판소리를 향유하는 남성-양반들, 일제강점기의 관리-들로 드러난다. 여성 판소리꾼은 예인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성적대상-기녀였고, 자신들만 소유하고자 하는 소리(기예)였

다. 진부한 승윤의 사랑 타령과 여성들 간의 관계(질투)는 금파의 오롯한 소리를 향한 열정과 삶, 목소리를 재현하는데 실패한다. 금파 그녀가 얼마나 뛰어난 명창인지 와 닿지 않아 아쉽다.

가장 황당한 인물은 ‘무릇’이라는 금파를 짝사랑하는 인물인데, 금파가 자신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자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속이고 과장하고 마음대로 꾸미고, 금파를 이용해 소문을 팔고 다닌다. 작가는 이런 행위를 “사랑했으나 사랑받지 못한 자의 분노였다”라고 안타까움의 정서로 처리한다. 그의 행동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범죄’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무릇은 사랑이 아니라 스토킹 또는 사이버블링을 일삼는 범죄자일 것이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판소리의 소재와 세계를 다시 재현할 때 무엇을 중심에 두고 어떻게 재현해야 할까? 이 책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독자들에게는 어떻게 전달될까? 한편 이 책에도 나오지만 금파 이전에 진채선이 있었다. 고창 동리정사와 판소리박물관에서 잊혀진 여성 명창들을 만났지만 박물관 판소리 계보에 최초 여성 명창 진채선은 없었다. 진채선은 신재효가 길러낸 제자, 그의 사랑 ‘도리화가’ 주인공으로만 소비되고 있었다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여성 명창에게 붙이는 성별 이분법적인 평가와 남성 기준의 잣대-천재 ‘소녀’명창, ‘남성’명창 ‘못지 않는’ 성량과 소리성음으로 일세를 풍미한 여성명창-인 판소리박물관의 기록이 불편하다. 나만 불편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해숙의 『금파』라는 작품은 금파라는 인물을 발굴하고 재조명한 반갑고 귀한 작품이다. 문학의 힘은 위대하다. 문학은 독자 스스로에게 작품을 통해 질문을 갖게 한다. 『금파』라는 소설은 미지의 판소리와 여성 판소리꾼의 삶을 상상할 수 있게 한다. 2022년 가을, 금파는 나를 고창으로 이끌었다.

해질녘 동리정사 앞마당 모과나무 두 그루가 탐스럽다. 금파는 모과처럼 단단하고, 그녀의 소리는 모두에게 위로가 되는 향기 같은 소리를 전했을 것 같다. 2022년 금파를 만나게 해준 작가에게 한편으로 아쉬움을 한편으로는 깊은 감사를 전한다. 금파와 같은 오래되어도 새롭고 낯선, 반가운 만남을 기다린다.

~~~~~

## (어른이 된) 춘희에게 (아직은 어린) 춘희가

영화 <태어나길 잘했어> 최진영 감독, 2022

성냥

안녕, 춘희.

나, 춘희야. 어린 시절의 너.

내가 갑자기 찾아가서 많이 놀랐지?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쓸쓸한 널 처음 봤을 때 나도 한번 만나고 싶었어. 안 죽고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싶었지. 내가 왜 나타났나 궁금하겠지? 그것도 뜬금없이 번개에 맞는 일까지 동반하고서. 모든 성인은 지랄맞은 내면 아이의 간섭과 통제로 많은 사고를 치지만, 내면 아이가 뭔지도 모르고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 너도 너의 문제가 많은 부분 어린 시절 나로부터 왔다는 걸 눈치챘겠지만 아무것도 못 하고 무기력하게 살고 있었고. 결국 한 번은 만나야 했을 거야. 아무튼 살아줘서 고마워. 난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거든. 성인이 된 너도 별다를 건 없는 것 같아서 곧 조금은 슬퍼졌지만.

사람들은 나의 고통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 내가 정말 괜찮을 줄 알았나? 부모가 한꺼번에 죽고 혼자 남았는데, 어떻게 괜찮겠어. 게다가 나를 아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잖아. 할머니가 나를 불쌍히 여기긴 했지만, 불쌍히 여긴 거랑 아끼고 사랑하는 게 다르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어. “누가 출가한 딸한테, 죽어서 없는 딸한테 집을 주냐”고 결국 나를 가부장제의 현실로 내동댕이치는 말까지 하셨고.

내 고통을 누구든 짐작이라도 할 수 있었을까. 이유도 모른 채 부모를 잃고, 한순간에 살던 곳에서 송두리째 뺏혀 그 좁은 다락방으로 옮겨져야 했던 마음을. 부엌 한편에 서서 히겁지겁 라면을 먹어야 했던 내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땀이 많아 사람들에게 기피 대상이나 된 내가 사실 얼마나 외로웠는지 궁금하기는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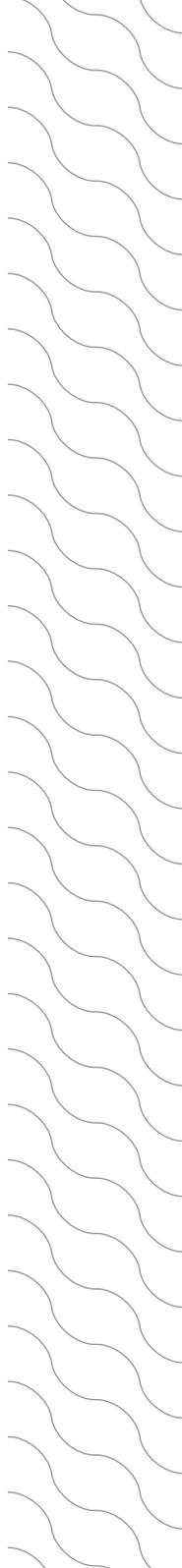
무섭다고 소리 질러도 들어줄 사람도, 기쁨을 나누고 싶을 때 함께 웃을 사람도 없었어. 놀이공원에서 노래방에서 혼자 그 고통을 삭일 때 나 자신도 견딜만한지 몰랐어. 남들이 소외시킨 나를 나도 소외시켰으니까. 그 고통에 귀 기울이면 그 안에서 질식돼 뭉개져 버릴까 봐. 살기 위해 내 고통을 돌아보지 않았어. 어차피 말해봐야 들어줄 사람도 없었으니. 사람들이 날 안 좋아한다는 말을 내 입으로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게 될 때까지 내 고통은 나한테도 무시당했어.

사실 난 이미 알고 있었어. 내 고통은 말할 수도, 나눌 수도 없다는 걸. 말했으면 고통은 없어졌을까? 말했으면 이해됐을까? 이해되면 나

눌 수 있었을까? 누구나 말은 알 수 있겠지. 말을 하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공통의 감정을 가질 수도 있겠지. 그러나 이때 말은 비명이나 절규가 아니라 서로 이해될 언어여야 해. 그래서 사람들은 고통에 겨워 짐승처럼 울부짖는 사람에게 알아듣게 말로 하라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라고 하잖아. 그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사회적으로 승인된 말로만 타인의 고통을 듣고 말할 수 있게 되잖아. 게다가 다른 몸이고, 다른 맥락에서 각자의 경험을 축적해 온 몸들인데, 이해하려는 노력까진 가능하겠지만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산에 들어가 자연인이 되고, 신을 찾아 절규하고, 동물이나 식물에게 말을 거는 거겠지.

만약 내 안에 평생 피해 갈 수도 없이 묵직하게 자리 잡은 고통이 온전히 내 탓이었다면 조금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어. 그러나 내가 자살한 부모를 둔 딸로 태어난 거나 부모가 죽을 때 같이 죽지 못했던 것도, 하물며 다한증마저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잖아. 아니, 자살생존자가 되기보다 자살한 사람이 되는 게 나았을까? 평생 부모와 보살핌의 부재 속에 시들시들한 목숨을 부지하느니 그때 죽었어야 했나?

나 역시 내 고통의 원인을 알고 싶었지만 내가 선택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질문은 의미가 없었어. 가해진 고통은 압도적이지만 결국 '고통은 말할 수 없다'는 말만 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결론에 다다랐어.



학교에서, 집에서, 친구들에게 소외당하면서도 그 고통을 무시해야 살 수 있었어.

그래서 네가 부동산에서 사람이 왔는데 안 보이는 적할 때 한참 웃었어. 여전하구나. 아니, 그게 안 보이는 척, 나와 상관없는 일인 척 무시한다고 될 일이냐고. 열쇠 바꾸면 집이 지켜질 줄 알았어? 옷장 하나 넣을 자기 공간이 없어 거실에 옷 널어놓고 살면서 그게 네 집인 줄 알았어? 사촌오빠네가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면서 내버려 두고 간 집을 네가 지키는 건 줄 알았어? 넌 그 집과 함께 버려진 거야.

그래 놓고 나의 상처를 헤집으려는 건 너도 똑같았어. 내가 너이니 결국 네가 너 자신을 괴롭힌 꼴이 되어버렸지만 말야. '땀 나면 닦으랬잖아. 그렇게 눈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지. 왜 자꾸 나타나서 옛날 생각하게 해? 왜 너 혼자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 그때 죽었어야지'라고 네가 나에게 소리쳤을 때 너도 알았을 거야. 이런 말들, 평생 네가 들어왔던 말들이잖아. 이런 폭력적인 말들. 너도 상처받았을 말들을 고스란히 나에게 쏟아놓는 너를 보면서, 네가 너의 것 아닌 듯 미뤄놓았던 슬픔과 고통이 다시 밀려왔어. 집을 팔면서 오빠가 시혜 베풀 듯 너를 살게 해준 거라고 말했을 때야 왜 그렇게 차갑게 굴었냐고, 왜 밀어냈냐고, 다락방 말고 다른 방 줄 수 있었지 않냐고, 눈물 콧물로 하소연했잖아. 너무 때늦은,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 뭐가 달라졌어? 라면 빼고 모든 후식이 가능한 식당에서 갈비 사 먹은 거? 어린 시절 고통이 곳곳에 스며든 집에서 꾸역꾸역 살아내느라 그

리 에 썼는데 결국 쫓겨나거나 하면서 뭘 태어나길 잘해?

그렇게 자기를 방치해 놓았으니, 삶의 기쁨과 슬픔을 나눌 사람, '계집 희'를 '기쁨 희'로 읽어줄 사람, 같이 마늘을 까고 태평소를 연주해줄 사람, 손바닥의 화상 흉터를 손에 꽃이 폈다고 말해줄 사람을 찾아 놓고도 도망갔겠지. 폴카를 함께 춰 줄 사람은 너 자신밖에 없었을 테니.

그런데 너는 불 앞에서 손을 집어넣기 전에 내 손을 빼줬어. 그리고 안아줬지. 왜 그랬어? 그러면 쉽게 감당하지 못할 지경의 고통에 질식당하지 않기 위해 오히려 고통에 무감해야 했던 내가 냅다 너하고 진정한 화해라고 할 줄 알았어? 아직도 잘 이해할 수 없어. 네가 나인데 내가 널 이해할 수 없으니 누구한테 물어야 하는 걸까. 왜 그렇게 쉽게 어린 시절의 나와 화해했다고 통 치고 태어나길 잘했다고 안전한 결말로 피해버렸는지.

난 그렇게 도망가고 싶지 않아. 네가 달라지길 바래. 네가 '전 태어나선 안 될 팔자였어요'라고 징징대며 밀어낸 그 사람과 다시 만나길 바래. 그에게 준 신발이 마사이족 말처럼 멀리 가기 위해 함께 가자는 메시지를 담았길 바래. 마늘 까는 거 말고 함께 다른 걸 시도하면서 정말 태어나길 잘했다는 환희를 느껴보길 바래. 그때 다시 한번 찾아갈게. 태어나길 잘했다고 내가 먼저 말해줄게.

내가 널 지켜준다면 너에겐 너 자신을 지키는 게 될 거야. 남에게 불쌍해 보일까 봐 전전공공할 필요 없이 우리를 우리가 지키는 거야. 끝까지 네 안에 있을게.

안녕.

##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실존의 '틈'

영화 <태어나길 잘했어> 최진영 감독, 2022

황채린

나에게는 나의 존재를 되물어야 하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다. 환경 다큐멘터리를 보는 날에는 비인간 동물의 희생을 통해 연명하는 내 존재가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지구에 해가 되는 것 같아 깊은 무기력에 빠진다. 하루하루 내 존재가치에 대해 증명해야 할 것 같은 기분에 시달리고, 내 자신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매 순간 누군가에게 인정을 갈구하며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나를 괴롭게 만든다. 내가 나 자신에게 희망과 힘을 불어넣지 못할 때, 나 자신으로 실존하지 못할 때, 그것보다 서글픈 일이 어디 있을까?

영화 <태어나길 잘했어>의 주인공 '춘희'는 같은 전주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이자 여성이라는 점에서 나와 닮은 구석이 많다. 나의 주눅 든 어깨와 유독 땀에 젖어있어 스스로 타인과 멀어지고 또 밀려나게 만드는 춘희의 다한증까지 역시 우리는 어딘가 비슷해 보인다. 자

기혐오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춘희의 존재는 공감이 되지만 수학적 행을 못 가도 혼자 놀이동산과 노래방을 즐길 수 있는 춘희의 씩씩함에 매료되기도 한다. 영화 <태어나길 잘했어>는 내면의 아이를 마주함으로써 자기혐오를 벗어나 마침내 자기 존재를 긍정할 수 있게 된 개인의 내면적 성장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영화는 개인적 성장을 넘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는 춘희의 깨달음을 통해 1990년대 한국 사회의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죽음, 가난과 외로움,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라는 사회의 이면을 재현하기도 한다. 같이 살자는 남자친구 주황의 든든한 제안에도 “누굴 지켜준다는 건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라는 춘희의 단호함에는 이 시대의 생존자이자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면의 무게가 그대로 담겨있다.

하지만 이러한 토대 위에 그려진 춘희라는 존재가 내뿜는 “태어나길 잘했어”라는 한마디의 말이 2022년의 지금, 또 다른 조건 속에서 태어나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춘희 같은 존재들에게 얼마만큼 닿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른바 ‘n포 세대’, ‘88만원 세대’로 불리며 ‘생존주의’ 혹은 더 나아가 삶을 끊고 싶은 마음, 존재로부터 벗어나 사라지는 것을 꿈꾸는 ‘탈존주의’라는 마음의 레짐<sup>1)</sup>을 가지고 산다는 청년들은 살아가면서 “태어나길 잘했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춘희는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된 건지, 아무것도 변하지 않

1) 『한국사회학 제49집 1호』 김홍중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 세대: 마음의 사회학의 관점에서」, 한국사회학회, 2015, p175-212

는 세상이라도 그것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건지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대사가 공허하게 맴도는 것 같은 아쉬움이 남지만, 그럼에도 영화는 춘희의 삶을 통해 지역 청년 여성이 스스로의 존재를 긍정할 수 있는 실존의 조건과 가치를 첨예하게 다루고 있다.

#### ‘가족’과 ‘집’이 부재한 ‘이방인’의 존재

영화 내내 춘희를 주눅 들게 만드는 원초적인 요인은 땀에 절어있는 것보다도 ‘부모가 없는’ 또는 ‘집이 없는’ 춘희의 ‘부재’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부모가 있는 것이 정상적인 세계에서 원가족이 없는 ‘비정상적’ 춘희는 양옥집의 다락방, 라면만 먹어 말랐다는 몸을 통해 ‘이방인’의 모습을 드러낸다. 흔히 ‘이방인’이라 하면 ‘사회구성의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는 인물’로 설명되지만, 영화는 오히려 주변부에 머물러 있는 춘희의 이방인적 ‘힘’으로부터 반전을 드러낸다. 이방인이 스스로의 고통을 위로하고 극복하는 순간, “태어나길 잘했어”라는 긍정을 통해 정상가족 없이도 자립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인간상을 증명해냄으로써 그녀의 주변부적인 위치가 중심부로 변하고, 춘희의 존재는 이방인이 아닌 새로운 주체성의 형성으로 전복되는 것이다.

한편 춘희를 ‘민달팽이’ 이방인으로 만드는 ‘집’의 부재는 오늘날 청년들에게 중요한 실존의 조건을 드러내기도 한다. ‘수수깡 집’을 들고 다니는 어린 춘희와 자신만 소유할 수 있는 양옥집의 ‘열쇠’는 춘희의 욕망을 반영하는데 이는 ‘영끌족’ 청년들의 욕망과도 매우 닮아있

다. 사촌오빠가 함부로 드나들던 양옥집을 떠나 캐리어를 끌고 새집으로 가는 골목길에 잠시 멈춘 춘희의 표정에서 비로소 ‘자기만의 방’을 얻었다는 자유로움이 느껴지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다. 이처럼 영화에서 드러나는 ‘집’의 의미는 마침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된 새로운 주체를 맞이할 공간, 동시에 간섭하던 외삼촌 가족을 벗어나 개인이 된 주체로서 ‘자유’와 ‘안정’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적 조건을 의미한다. 이처럼 자기 정체성과 안정감의 욕구가 반영된 집이라는 공간은 비주거용 고시원이나 불법 증축 옥탑방과 같은 취약한 주거적 조건에 처한 민달팽이를 닮은 청년들에게 중요한 실존의 조건을 의미할 것이다.

#### 관계 속 사회적 존재라는 깨달음

영화에서 구현하는 춘희의 세계는 IMF라는 국가의 경제적 위기로 인한 원가족의 사회적 죽음을 경험함으로써 사회와 가족, 개인의 삶이 교차하며 미시적으로는 외삼촌 가족과의 부정적 관계, 그리고 주황, 노숙자와의 긍정적 관계라는 두 축을 기준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 영화가 특별한 것은 시공간을 비틀어 ‘관계망의 총체’라는 사회에 ‘과거의 나’라는 관계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람과 사람 간 관계뿐만 아니라 국가와 경제, 가족과 공동체 간 상호작용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관계’를 보여주지만, 과거의 내가 가져오는 고통과 슬픔을 통해 현재의 나를 변화시키는 ‘성찰성’까지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과거와 현재의 시간이 포개지면서, 청년 춘희와 중학생 춘희의 만남과 관계는 성찰적 시간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춘희의 자아 성찰은 단지 개인적 성찰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마침내 “우리 잘못이 아니야”라는 깨달음을 통해 외삼촌 가족에게 받았던 차별과 가난, 그리고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무너진 90년대 한국 사회에 대한 성찰로 시도되기도 한다.

####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관계'

“가끔은 혼자인 게 무서웠는데, 저는 늘 혼자였”다는 춘희는 늘 외로움에 두려웠지만, 주황의 지켜주겠다는 말에 자신이 불쌍해 보이냐며 잔뜩 가시가 돋은 말들로 주황을 밀어낸다. 홀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돌보는 것만으로도 벅찼던 춘희는 한 존재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춘희는 이내 스스로의 존재를 긍정하게 되면서 ‘혼자’에 갇혀있던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뛰어넘어 중학생 춘희를 통해 만난 “여러 빛깔의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꿈꾸게 된다. 그것은 노숙자와 주황에게 건넨 마사이족 신발과도 같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마사이족의 메시지는 지금까지 혼자 빨리 자랄 수밖에 없었던 춘희의 삶에 대한 한 마디 예언처럼 들린다. 하지만 적어도 춘희의 옆에는 벼락을 맞았을 때 ‘소주’를 건네줄 노숙자의 존재가 있고, 손의 흉터를 꽃이 폼다고 말해줄 주황의 존재가 있는 것처럼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실존의 조건에는 서로를 지켜주고 돌봐줄 관계가 필요하다.

#### 치료학적 자기계발 문화라는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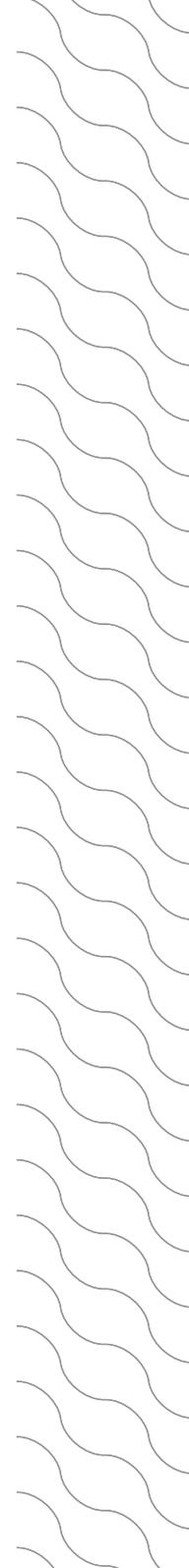
춘희와 주황이 참여하기로 했던 유명한 독일 심리치료 강사 ‘게오르그 짐멜’의 워크숍은 비록 사기로 밝혀졌지만, 짐멜의 ‘이방인’과 ‘관계’에 대한 사회학은 이처럼 춘희의 삶에 반영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내면의 아이를 통해 공포를 직면하고 극복한다는 이 영화의 서사가 오프라 윈프리의 토크쇼, 오은영 박사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익숙한 자기 고백 방식과도 닮아있어 상업적인 치료 내러티브 문화의 하나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한다. 춘희를 통해 설파되는 ‘자기혐오’라는 마음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은 ‘자아가 실현된 삶’이라는 이상과 자아를 긍정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살핌과 치료학, 고통의 직면이 필요한 사람들로 전제하기 때문에 평범한 삶들을 병리화하고 우리의 감정을 일원적으로 구조화하는 ‘치료학적 자기계발 문화’<sup>2)</sup>에 가담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느껴지기도 한다.

#### “태어나길 잘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틈이 있기를!

하지만 춘희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청년들이 세상을 향해 “태어나길 잘했어”라고 긍정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의 실마리를 살펴볼 수 있었다. ‘가족’의 부재, ‘집’의 부재, ‘서로 지켜줄 수 있는 관계’의 부재라는

2) 「감정 자본주의」 에바 일루즈 「2장 고통, 감정 장, 감정 아비투스」, 돌베개, 2010

위험이 오늘날 많은 청년의 현실과 교집합을 이루면서 영화는 그 존재만으로도 춘희와 닮은 오늘날의 존재들을 응원하는 것 같다. 최진영 감독이 영화를 통해 “자아 실존의 그 철저한 부조리에 직면해 있었던 시지프스의 곤경일지라도 그 안에는 분명, 프로메테우스가 발을 들여 놓아도 될 만큼 충분한 공간이 있다”는 지그문트 바우만의 모토를 보여주려 했던 것처럼<sup>3)</sup> 우리에게도 스스로 ‘태어나길 잘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틈이 있기를 바란다.



from. 내일, to. 매일

전시 《2022 도래할 풍경\_전주: 매일 매일 내일展》

이은심

“창작과 노동을 둘러싼 여성 예술가들의 질문과 성찰”

- 전시 서문 중에서

팔복동, 이어질 철길

버스에서 내리자 바늘꽃이 가을바람에 흩날린다. 쪽 이어질 철길 옆을 바삐 걸으며 앞으로 이어질 전시의 풍경을 상상해 본다.

도착한 전시공간은 팔복예술공장이다. 이곳은 폐산업시설을 재생하여 만든 복합문화공간이며 1979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는 카세트테이프를 생산하던 공장이었다. 25년간 버려진 곳이 문화와 예술로 재탄생되었다. 당시 카세트테이프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대부분 우리의 언니였고 엄마였던 이들이었다. 여성노동의 현장이었던 팔복예술공장은 현재 전시와 대관 및 많은 예술사업을 진행하는 곳으로 운영

3) '스스로가 싫어진다면'-〈태어나길 잘했어〉, 서울독립영화제, 최진영 감독, 2020.12.05,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0149512&memberNo=37618212&vType=VERTICAL>

되고 있다.

노동의 삶이, 삶이 노동으로 스며든 곳에서 다시 연결된 예술의 공간으로 또 다른 노동의 현장으로 낯섦과 익숙함을 안고 전시관 2층으로 향했다.

#### 매일매일 점이 만나 내일의 선이 되다

여기 24명의 여성 예술가가 모였습니다. 누군가의 딸이며, 혹은 누군가의 아내이자 또 누군가는 엄마의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 무엇보다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부여받고 매일 매일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창작과 현실 사이에서 중횡무진하는 여성 예술가들의 길고 고된 질문과 성찰을 담은 본 전시는, 창작과 노동을 둘러싼 매일의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아 내일을 상상해 보는 자리입니다. 깃발 없는 연대로 모두가 안녕한 내일을 상상해 봅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필요하니까요.

- 전시 서문 중에서

이번 전시는 사회 변혁의 주제로 사회적 편견과 불평등을 깨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고 한다. 전시는 크게 두 섹션으로 구성되었는데 ‘도래할 풍경’에는 강슬생, 고보연, 김경호, 김현수, 박소현, 정하영, 조영주 등 활발하게 활동 중인 작가 24명의 작품을 전시하였고, ‘이어질 풍경’에서는 한국 여성 미술 1세대 여성 예술가들과 기획자

김종례, 방정아, 임정희 등 7명의 인터뷰 아카이브 영상이 전시되었다.

창작과 노동을 둘러싼 매일의 이야기에서 내일을 상상해 보는 자리로 회화, 설치,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작품을 전시했다.

전시장에 들어서니 등받이가 없는 7개의 둥근 의자 위에 검은 헤드폰이 올려져 있다. 한국 여성 미술 1세대 여성 예술가와 페미니스트 7명의 인터뷰 아카이브 영상이 제각각 목소리를 내며 컷이 지나갔다.

박영숙 작가는 “필연이었다는 거지. 우연히 우연이었는데 팔자같이 저는 자라왔던 것 같아요. 작업할 수밖에 없는 완성된 팔자를 타고난 것 같아요, 팔자.”라고 말했다. 가족법 개정과 호주제 폐지가 목적으로 이어진, 그림을 운동으로 그리는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김종례 작가의 목소리에서 작가의 고뇌가 들렸다. 방정아 작가는 ‘지금 여기’는 항상 바뀌었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지속적인 삶이 가능할까를 생각했다고 이야기했다.

임정희 작가는 ‘지난 것들에 대한 반추, 자기반성의 의식이 내가 움직이는 동력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윤석남 작가는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을 찾았’고, 정정엽 작가는 작가로서의 삶을 ‘창작하고 창작하지 않는 나도 지금 이 방식을 창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이현숙 작가는 ‘작업할 수 있다는 것은 연대하고 손을 잡는’ 거라고, ‘타자의 위치에서 서는 것 그것이 페미니즘’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예술의 노동, 살림살이, 돌봄, 생태 환경과 동물권까지 다양한 관계의 연결과 함께 일상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인터뷰 아카이브 영상으로 만난 7명의 작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 견고해졌고 일방적 돌봄이 아닌 서로 이어진 상호돌봄이 함께 공생, 공존하는 생존의 영향력을 주었다.

연대하고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과 예술을 향한 쏟아지는 시대적 아픔과 현안을 안고 그들은 내일을 향해 매일 매일을 작품으로 기록했다.

#### 보이지 않는 노동, 예술로 재생산된 보이는 노동을 둘러본다

오현림 작가의 〈시선으로부터〉는 배제된 우리 일상의 풍경들과 쓸모 없는 존재들에 대해 ‘휴식처’라는 시선의 필요성을 담아주었다. 양순실 작가의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고요함의 힘〉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여성성, 엄마이자 딸, 아내의 역할로 강요되어 온 모습에서 작품의 무게감이 느껴졌다. 작가는 “작품의 드레스는 얼굴과 손을 지운 익명의 존재로 꿈과 희망, 이상향을 담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고보연 작가의 전시는 이전에 다양한 공간에서 마주한 경험이 있다. 성매매 집결지인 선미촌 기억의 공간에서 또 새활용센터 봄에서, 누군가에겐 버려진 기억이 다시 치유의 기억으로 살아나는 전시와 작품들이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폐천버려진 천으로 가변설치한 작품으로 만났다. 조각조각 뺏아내린 천은 너와 나의 아픔의 관계성과 살을 맞닿은 따뜻함, 때론 그 속에서 삶의 팍팍함과 힘겨움을 무수하게 땀은 텍스트로 짐작할 수 있었다.

정하영 작가는 여성의 노동 현실을 ‘자기만의 방’이라는 해방과 자유로 보여주었다. 보라와 회색 케이블타이로 만든 옷과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수세미로 가변설치한 작품은 오랫동안 시선을 머물게 했다. 그렇게 만든 옷과 스테인리스 스틸을 엮어서 만든 흔들 그네는 작가가 말한 해방과 자유를 또 다른 자기만의 방으로, 방입과 규정화된 몸을 쉬어도 쉴 수 없는 모든 노동에 대한 모순으로 차갑게 소리 내어 비틀었다.

수많은 케이블타이와 철 수세미는 노동의 얼룩을 박박 긁었다. 그리고 헤어나올 수 없는 노동의 고리를 끊고 다시 자기만의 방에서 나올 것이다.

#### 풍경을 다시, 그리다

전시 작품은 내 몸에 저장된 기억을 반사하기도, 때로는 투영시키기도 했다. 그 간격은 때론 멀게 느껴지기도 했고 바로 앞에 와 있는 듯도 했다. 전시의 풍경을 마주하며 지난 과업을 토하며 되새김질했다. 지금이 아프다기보다는 매일 매일을 통과해온 돌봄과 노동이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것, 아니,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려 애썼다는 것. 오랫동안 잊고 싶었던 과거의 시간을 이제는 안아주고 싶었다.

호기심이 머무는 작품이 있었다. 김현수 작가의 두 작품인 〈어흥〉139x106cm, 2020과 〈쿵쿵쿵!〉165.5x112.1cm, 2021이다. 드로잉과 콜라주, 바느질이 함께 혼재된 작품이다.

두 작품에 대해 김현수 작가는 “나는 인간 이성을 중심으로 획일적으로 강요된 사회적 요구에 억눌린 ‘본성’을 회복하는 일에 관심이 있다.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은 각각의 자기 본성을 지닌 유일한 존재이다. 타고난 자기 본성 그 자체일 때의 원초적 자유가 내가 작업을 통해 닿고자 하는 지향점이다. 인간중심주의적 생각으로 분열된 채, 승자독식의 세계로 치달기 이전의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이 서로 뒤엉켜 유기적으로 공존하고 교감할 수 있었던 세계를 열어 보이고 싶다”고 말했다.

‘5번의 멸종을 겪은 지구는 과연 승자독식의 세계를 어떻게 상상할까?’ 궁금해졌다. ‘인간은 과연 무엇일까?’ 라는 명제를 떠안겨주었다.

〈어흥〉과 〈쿵쿵!〉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그림을 하나하나씩 떼어보았다. 아이와 어른, 자연과 인간, 문자와 감정, 전쟁과 생명, 씨앗과 평화, 쉴 틈 없이 움직이고 자신의 정체성을 쏟아붓는 서사를 유쾌하고 밝게 희화화했다.

지금의 이어질 풍경처럼 문자 초성 하나하나를 반복하기도 하고, 각자가 대표성을 띠며 지금을 요리조리 비틀기도 했다. 똑똑 끊어지는 듯하면서도 이어지는 이야기를 만들며 자신의 위치성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었다.

사람이 모여있지만 불안하게 웅성거리고 우뚝뚝 자글자글하게 슬픔이 웃으면서 떨어졌다.

그림 속에서 하나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해 각각의 다른 시선으로 보는 시간이 경계가 있지만, 경계가 해체되는 확장된 이미지로 느껴졌

다. 하나씩 똑딱 떼어두고 붙일 수 있는 자유로움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 도래할 철길

노동의 공간은 유령이 아닌 매일매일 현장에 있다. 노동의 가치는 높고 낮음이 없으며 보이지 않는 그림자 노동, 재생산된 노동의 영향력과 태도가 예술의 노동으로 선명하게 현재를 가로질러 왔다. 이제 여성의 성찰은 충분하므로, 앞으로 도래할 풍경의 철길을 나서며 따뜻하게 마주하고 싶다. 수고했어! 매일매일, 안녕?! 내일.

## 보이지 않는 노동과 보일 수 없는 목소리 사이의 유쾌한 횡단

전시 《2022 도래할 풍경\_전주: 매일 매일 내일展》

정희정

전주의 팔복예술공장에서 열린 《매일 매일 내일展》은 여성작가들의 창작과 노동을 둘러싼 질문과 성찰에 대한 전시이다. 본래 이 전시는 참여자 중 한 사람인 박진희 씨가 2021년 제주도에서 기획했던 전시에 전주의 작가들을 더해 재구성한 것이다. 여성주의를 주제로 한 전시 자체는 새로운 것이 없었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가부장 사회에서 창작과 노동에 대한 고민은 유효했으며, 시사하는 바가 컸다. 어떤 점 때문일까.

내가 여성주의를 주제로 접한 최초의 전시는 1999년 예술의 전당에서 보았던 〈팔뚝들의 행진〉이었다. 이 전시는 여성 미술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많은 여성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당시 참여한 작가 중에는 지금까지 활발히 활동하는 작가들이 많다. 《매일 매일 내일展》에서는 당시 기획자 중 한 명이었던 임정희 씨를 비롯해 참여

했던 작가들의 인터뷰를 볼 수 있었다. 《매일 매일 내일展》은 어쩌면 내게 그로부터 20년이 넘는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이 달라지고 변화한 것일까를 생각해 보게 한 전시였던 것 같다. 한국의 1세대 페미니스트라 불리는 윤석남부터 박영숙, 정정엽, 홍이현숙, 방정아 등 약간의 세대 차를 두고 들려주는 여성 작가들의 생생한 인터뷰는 이곳에서 페미니즘 풍경이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 조망할 수 있는 흥미로운 요소였다. 페미니즘이라는 말조차 생소하고 여성이 창작활동을 한다는 자체가 부자연스러웠던 당시 시대적 분위기 속 윤석남 씨가 허난설헌의 생각을 찾아간 일화는 작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미술사라는 제도권에서 배제 될 수 밖에 없었던 여성의 목소리를 감안할 때 작품 이상으로 작가들의 구술 기록이나 아카이빙이 당대를 이해하고 역사를 인식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게 된다.

전시장을 채운 24명의 예술가는 언뜻 보기에 여성이라는 공통점 외에는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 없어보인다. 다양한 형식과 자기만의 조형 방식으로 회화에서 설치, 영상물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기량과 표현방식을 보여주었다. 육아 노동부터 유학 시절의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다녔던 네일샵, 이민자들의 노동권, 故 장자연 사건, 자개장으로 만든 연장, 빈집에서 발견한 3대째 내려오는 고문서까지. 다양한 출발점에서 시작하지만, 한결같이 여성으로서 겪는 그림자 노동을 가리키고 있으며 거의 모두가 최근작이었다.

그중 조영주의 2021년 영상 작품 <꿈 빠니 Com Pani>는 단체널 영상으로 라이브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4명의 퍼포머는 각기 다른 한 가지 신체적 제약을 설정한 후 목적지까지 도달해야 하는데 서로의 도움 없이는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다. 어떠한 대화나 설명 없이 온전히 몸의 움직임만으로 진행되는 퍼포먼스는 4인 가족을 연상시키는데 마지막까지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인물이 여성임을 보여준다.

작품과 함께 지금 이곳에서 반복되는 그림자 노동을 생각하면서 전시 제목 ‘매일 매일 내일’을 곱씹어 본다. 인터뷰 중 종갓집 할머니 리로 70년대를 보낸 작가 김종례는 시대의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거슬렀는지 생생히 증언한다. 지금의 관점에서 그녀가 가부장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답습한 것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으나 한편으로 집단이 개인에게 가하는 영향이란 쉽사리 저항할 수 없는 유산임을 떠올리게 한다. 그것은 정체성이 구성되는 시스템이자 언어와 같은 것이라 존재의 필요조건이자 나를 옹아매는 장치가 된다.

매일이라는 일상에서 내일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것이 일상이라는 거대한 힘이고 시스템의 작동원리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반복되는 매일이 우리에게 관습의 틀을 새겨 넣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몸이 나를 넘어서서 말을 할 때가 있다. 오직 사후적으로만 시야에 들어오는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이미 내 몸에 잠재된 무언가를 인식하는 순간. 임정희 씨는 인터뷰에서 감각이 감성보다 우선하는 이

유를 들어 그것이 표피적이지만 물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라고 주장한다. 모든 작품 속에서 여성들이 몸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일 것이다.

“작가의 언어는 현실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의미화하는 것”이라는 바르트의 말처럼, 일상이라는 진부한 편린들 때문에 보이지 않는 관습들을 다시 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창작의 순간이자 도래할 미래가 아닐까. 전시장을 뒤로하며, ‘내일’ 도래할 ‘매일 매일’이 여성 작가만을 그림자 노동으로 묶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목소리가 지금, 이 순간을 횡단하는 풍경을 상상해 본다.

문화예술 다리미 공유회 2022. 11. 16

## 서로를 통해 길을 만들어가는 우리들

이소정

프리랜서 기록자

계절에 맞지 않게 포근한 날씨에 차라리 매서운 한파가 그리워지는 11월 16일 수요일, 성평등 문화예술 비평학교 '문화예술다리미' 심화과정 공유회가 사회혁신 전주, 오픈라운지 '땡땡'에서 열렸다. 참여자와 멘토, 협력 단체 관계자들이 모였고 전주문화재단의 김선정 팀장이 사회를 맡았다. 스무 명이 둥그렇게 마주 앉아 돌아가며 각자의 소개를 나눈 후에 비평문 발표가 진행되었다. 작품 선정의 동기, 글을 쓰면서 마주했던 고민, 비평문을 완성하고 난 후에 남은 질문 등 미처 글로는 담지 못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 마지막 회차이니만큼 '문화예술다리미' 심화과정에 대한 소감도 나누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각자가 느낀 감상을 나누며 앞으로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함께 상상해나갔다. 끝으로 이 과정을 완주한 참여자에게 수료증을 전달하는 수료식이 진행되었다. 이어지는 글을 통해 조금 더 자세

히 그날의 대화와 풍경을 들여다보자.

'문화예술다리미'는 지난 9월부터 10월 초까지 매체별 전문가 강연을 들은 뒤 10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그룹별 쓰기 활동을 시작했다. 비평 작품은 전북 지역의 작품으로만 선정하였으며 문학과 영화, 전시 세 분야로 팀을 나누었다. 문학팀은 소설 『금과』 김혜숙, 다산책방, 2022를 읽고, 영화팀은 영화 <태어나길 잘했어> 최진영 감독, 2022를 보고, 전시팀은 전시 《2022 도래할 풍경\_전주: 매일 매일 내일展》전주문화재단, 2022을 관람한 후에 각각의 비평문을 작성했다. 협력 단체 중 한 곳인 '지식공동체 지지베베'에서 각 팀당 1명씩 멘토로 참여했으며, 글쓰기 및 비평문 작성에 대한 전반적인 멘토링을 진행했다.

참여자 숫자만 놓고 보면 작년에 비해 적어졌지만 8명 중 6명의 참여자가 비평문을 완성하여 참여자 대비 수료자 비율은 작년과 비슷했다. 또한 올해에는 지역의 예술작품만을 선정해 비평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남달랐다. 올해의 심화과정에서는 팀원들 간의 토론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 비평문 또한 더 깊은 사유와 통찰을 담고 있었다는 평이 많았다.

## 소설 『금과』

참여자: 김혜영, 지산 멘토: 김은혜(지식공공체 지지배배)

김혜영 참여자는 「소리꾼 허금과, 벽을 두드리다」라는 제목으로 비평문을 작성했다. 제목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이 비평은 소리꾼으로서 허금과가 구한말, 남성이 아니면 판소리꾼으로 인정받을 수 없던 그 시대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아야 했던 차별을 견디고 끝내 꿈을 이뤄내는 자기 주도적이고 도전적인 모습에 주목한다. 하지만 소설 후반부로 갈수록 남성 인물들과의 사랑 서사가 주를 이루고, ‘금과’가 자기 시련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남성 인물들이 문제를 대신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소리꾼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당당했던 ‘금과’의 모습이 사라져버림을 지적한다. 비슷한 맥락으로 소설책의 표지 일러스트가 지나치게 여성적인 매력을 강조한 전형적인 ‘미인’의 이미지를 사용한 것에 안타까움을 표현함과 동시에, 여성 인물에 대한 동시대적 감각을 담은 ‘시각 점검’이 필요함을 말한다. ‘금과’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롭게 재해석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며, 이 작품이 진채선과 허금과의 뒤를 잇는 여성 판소리꾼들의 계보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의미를 두었다.

지산 참여자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여성 소리꾼 금과, 허금과」라는 제목으로 비평문을 작성했다. 실제로 소설을 읽고 나서 그는 판소리의 고장인 고창에 세 번이나 방문하기도 했다. 여전히 남아있는 판소리 학당인 ‘동리정사’ 앞에서 2022년의 여성 판소리 버스킹을 보며 ‘금과’를 떠올려보기도 하고, ‘금과’가 힘들 때마다 걸었던 모양성 길을 따라 걸으면서 그의 고된 삶을 짐작해보기도 했다. 잡년, 독한 년, 미친년으로 불렸던 ‘금과’를 성차별 사회에서 반란의 길을 여는 여성 선배로 칭하고, 성차별이 만연한 사회에서 스스로 자기 삶을 사는 여성에게 이런 평가가 붙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랑스러운 이름이라고 했다. 등장인물 중 ‘무릇’의 짝사랑을 그린 방식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사실상 그 행동이 현대의 스토킹 혹은 사이버불링온라인 폭력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포장했다는 것이다. 이는 남성 인물의 감정에 치중해 서술했기 때문이며, 예술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상기시켰다. 여러 아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이 ‘금과’라는 선배 여성을 발견하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미가 크다며 작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다.

## 영화 <태어나길 잘했어>

참여자: 황채린, 성냥 멘토: 최은영(식공동체 지지배배)

황채린 참여자는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실존의 '틈」이라는 제목으로 비평문을 작성했다. 전북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라며, 전주에 사는 청년이자 여성인 '춘희'가 자신과 닮아 보였다고 했다. 본인 또한 자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희망과 힘을 갖지 못할 때나 처참함을 느낄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태어나길 잘했어」라고 말하는 이유가 궁금했다고 한다. 영화 속에서 찾아낸 실존의 조건 세 가지는 '원가족의 부재, 집의 부재,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관계의 부재'이다. 하지만 서사가 진행됨에 따라 '춘희'는 자기 존재를 긍정해 나가고, 처음으로 자기만의 집을 구하고, 남자친구 '주황'과 '노숙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기도 하며 부재를 극복해나간다는 점에 주목했다. 하지만 내면 아이를 통해서 고통을 직면하고 또 극복한다는 방식으로 흘러가는 서사가 상업적인 치료문화 내러티브와 비슷한 방식이어서 아쉬웠다고 말했다. 자기혐오가 질병이며 치료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설득함으로써 오히려 그 안에 머물러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이어서 공유회에 참석하지 못한 성냥 참여자의 비평은 최은영 멘토가 대신 나눠주었다. 성냥 참여자의 비평문은 「(어른이 된) 춘희에게 (아직은 어린) 춘희가」라는 제목의 편지였다. 성냥 참여자는 앞에서 황채린 참여자가 제기한 의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파고들었다. 내면의 아이를 꺼내서 화해하는 일종의 심리치료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는 항상 모든 잘못을 내면 아이와 화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극복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이 들었다고 한다. 사회적 현상으로 보이는 이러한 서사는 오히려 영화를 관람하는 관객은 아직 긍정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주인공이 태어나길 잘했다고 선부르게 긍정함으로써 그 지점이 잘 해결되지 않은 채로 급하게 영화가 마무리되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지역 감독이 지역을 배경으로 청년 여성의 이야기를 장편영화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질문을 꺼내어 토론하고 함께 생각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최은영 멘토는 말했다.

## 전시 《2022 도래할 풍경\_전주: 매일 매일 내일展》

참여자: 이은심, 정희정 멘토: 최정지식공동체 지지배배

이은심 참여자는 「from. 매일, to. 내일」이라는 제목으로 비평문을 작성했다. 전시를 더 잘 경험하기 위해 두 번의 관람을 하면서 여성 예술가들의 작품을 마주하였다는 그는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이 불편함이었다고 고백했다. 이은심 참여자는 “창작과 현실 사이에서 중횡무진하는 여성 예술가들의 길고 고된 질문과 성찰” 전시 서문 중 일부에 지극히 공감했으리라. 이은심 참여자는 전시장에서 잠시 눈을 감고 ‘이 예술인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 작품을 만들었을까?’를 떠올렸을 때 자신의 과거 경험과 풀리지 않은 고민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걸 돌이켜 바라보는 일은 상당히 불편했고, 꺼내어 글로 옮기는 작업도 쉽지 않았지만,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일이기도 했다. 여성 노동자들을 대면한다는 생각으로 비평문을 써나갔다는 그는 비평문 안에서 작가들의 작품 하나하나를 애정 어린 시선으로 관찰하여 자신이 느끼고 발견한 지점들을 글로 옮겨내었다. 이 전시를 통해 스스로가 지금 공생하고 공존하며 생존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다며, 이제 여성의 성찰은 충분하므로 앞으로 도래할 풍경을 따뜻하게 마주하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

정희정 참여자는 「보이지 않는 노동과 보일 수 없는 목소리 사이의 유쾌한 횡단」이라는 제목으로 비평문을 작성했다. 전반적으로 전시 작품에서 느껴지는 정서가 여성의 그림자 노동이었고, 그 속에서 여성의 삶이 쉽지 않은 현실을 느꼈다고 말한다. 정희정 참여자는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관습의 틀을 새겨 넣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몸이 나를 넘어서서 말을 할 때가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그것이 바로 여성들이 몸의 감각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일 것으로 추측한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현재라는 덜미에 붙잡히는 느낌이 들고, 이러한 생각도 기계처럼 반복된다며 너무나도 바뀌지 않는 현실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팔복동 공장에서 천여 명의 여공들이 일하던 과거 그 시절에는 공장에서 연대가 생기고 뭉치고 폭발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무의식 아래로 작동하고 있는 느낌이 들고, 때때로 ‘나만 이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며, 여전히 남아있는 질문을 꺼내놓았다.

### 지난 활동을 돌아보며 더 나은 길을 궁리하다

발표에 이어, 이번 교육 과정에 대한 소감을 나눴다. 참여자들은 이번 심화 과정에서 서로 토론하는 시간이 좋았다는 의견을 말했고, 한 참여자는 얘기가 오고 가는 과정에서 감전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표현했다. 펜 워크숍을 통해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공식적으로 주어지기도 했지만, 조별로 같은 작품을 비평한 덕분에 한 작품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그 대화를 통해 참여자와 참여자, 참여자와 멘토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배우고 사유를 확장해가는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또한 멘토의 역할이 단지 글쓰기에 대한 첨삭 혹은 일방적으로 지식을 나눠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민의 과정에 함께 하고 지지의 언어를 보탬으로써 참여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더 편하게 꺼내놓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누군가의 창작물인 예술작품을 자기 언어와 시각으로 해석하고 비평하는 과정에서 자기 검열의 혼란과 자기 직면의 고통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하지만 관계자들과 멘토들, 참여자들이 세심함을 발휘하여 서로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였고, 덕분에 참여자들이 비평문을 완성해내고 심화과정을 완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작년에는 입문과정을, 올해에는 심화과정을 진행했는데 둘 다 매체별 강연 위주로 진행되어 크게 변별력을 느낄 수 없었다는 아쉬움도 있었다. 또한 작년에는 참여자가 18명이었는데 올해에는 8명으로 눈에 띄게 줄어들어 더 많은 사람과 함께하지 못해 아쉽다는 의

견도 있었다. 주최 측에서는 이런 의견을 반영해 내년도에는 사업의 시기를 더 앞당기고 홍보나 프로그램 기획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아쉬운 점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가 함께 ‘문화예술다리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는 것에 감사함을 표했다. 6개의 문화재단,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전북대학교 부설 여성연구소,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지식공동체 지지배배 관계자들이 펜 워크숍과 공유회에 참여하여 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지도록 돕고, 참여자들의 고민과 사유의 과정에 함께하며 배움의 의지를 보여준 점이 이 과정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기도 했다.

‘문화예술다리미’ 1, 2기 참여자들을 기반으로 비평그룹을 시작해보자는 의견도 나왔다. 세 명의 멘토는 비평그룹의 적극적인 활동이 지역의 문화예술작품이 고립되지 않는 건전한 피드백 체계를 만드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꼭 높은 수준의 비평을 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지역의 예술작품을 보고 느낀 점을 성평등 시각으로 해석하여 글을 써내고 창작자와 다수의 시민에게 다가가고자 노력하는 과정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창작자와 시민들에게 큰 존재감으로 가닿는 데에 혹여 실패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동료 발견하는 것은 지역에서 문화예술 성평등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지거나 고립되지 않고 길을 만들어가는 방법이자 서로가 연결되는 기회이기도 할 것이다.



이 글을 읽은 분이라면 분명 문화예술과 성평등에 애정을 지녔을 것이라고 믿으며, 시간을 내어 이들의 비평문을 꼭 읽어보시기를 권한다. 그리고 머지않은 시일 내에 어디선가 접하게 될 이들의 문화예술 비평문을 함께 기다려주시라. 그것이 바로 성평등한 문화예술생태계를 만드는 이들의 곁에서 함께 걷는 연대의 방식일 것이다.



~~~~~  
나가는 글

바깥의 바깥, 그 먼 곳에서부터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

신인혜
완주문화재단 정책기획팀

바깥의 바깥, 그 가장자리에서 들려온 목소리:

전라북도 미투 운동의 시작

2016년,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SNS를 통해 ‘#OO계내_성폭력’이라는 키워드로 시작된 대한민국 문화예술계의 미투.Me too 운동은 머지않아 수도권, 바깥, 지역으로도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2018년, 전북에서도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오랫동안 숨죽이고 있던 목소리가 SNS가 아닌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지역의 문화예술계에서도 가장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여성이자 청년이었던 예술인은 지역 문화예술계에서 ‘대표’ 혹은 ‘선생님’이라 불렸던 사람을 가해자로 호명했다. 한 명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곳곳에서 같은 폭력을 당한 여

성예술인들이 존재를 드러냈다.

권위를 가진 소수의 예술인들이 주도하는 지역문화예술계의 폐쇄성, 스승과 제자로 연결되는 수직적 관계, 호명되지 않으면 작업을 계속해 가기 어려운 지역 신진예술가들의 현실을 이용한 가해자의 폭력은 몇몇 개인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 작업 방식에 대한 반시대적 감수성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 안의 모두가 알고 있었으나 모른 척했던, 혹은 무관심했던 전북 문화예술계 구조의 문제였다.

흩어진 점들이 모여 선을 이루기까지:

성평등한 문화예술계를 위해 민간, 공공, 학계가 만나다

미투 운동이 시작된 지 1년이 넘게 지난 2019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문화디자인 자리에서 주관한 2019 성평등 문화 확산 네트워크 지원사업 ‘미투 이후, 지역에서 성평등을 이야기하다’ 전북지역 포럼이 열렸다.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전주문화재단, 완주문화재단과 민간단체인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가 함께 준비한 포럼은 권력과 위계질서가 뚜렷한 지역문화예술계의 폐쇄성과 이로 인한 공론화의 어려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지역을 떠나야 하는 현실을 바로 보게 했다. 그리고 ‘공공영역의 문화재단이 성평등 문제와 관련

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문화예술계는 스스로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남겼다.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문화재단, 지자체 인권담당관까지. 하나의 점으로 존재하던 이들은 포럼이 남긴 질문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답을 찾아가기를 원했다. 지역 문화예술계의 구조를 분석하고,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 함께 문제를 공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2020년, 전라북도 5개 문화재단(전북, 고창, 익산, 완주, 전주)과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는 '전라북도 성평등 문화확산 네트워크(가칭) 준비 모임'을 추진했다.

2020 성평등 문화확산 네트워크 지원사업과 완주문화재단 문화예술정책발굴 '생강' 사업으로 진행된 준비모임에서는 공공영역과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야기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이를 위해 준비모임에서는 문화재단 사업을 성평등 관점에서 살펴보는 워크숍과 지역 내 성평등 문제를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전북지역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 포럼', 지역여성문화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전북 여성문화예술인 수다회'를 진행했다.

'성평등 관점으로 문화재단 사업 다시보기' 워크숍에서는 전북권 문화재단의 심의위원이 특정 성(남성) 71%, 50~60대가 71%로 몰려 있음을 확인하고, 경력을 기준으로 한 심의위원 선정방식 대신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세분화해서 심의위원을 구성하는 방안

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전북권 5개 문화재단과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전북연구원 여성연구소가 공동주관한 '전북지역 문화예술계 성평등 정책 포럼'은 행정과 문화재단, 학계, 민간 등 다양한 주체들의 발제와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성평등한 문화예술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과 시스템의 마련 외에도 문화예술계 내에서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전북 여성문화예술인 수다회'는 전북에서 활동하는 여성문화예술인들이 모여 전라북도에서 예술을 한다는 것, 여성으로써 예술을 한다는 것, 지역에서 여성예술인이 작업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것, 기대하는 문화예술 정책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이들은 결과자료집 『예술하고 있습니다』의 머리말에서 스스로의 기록을 "변방과 같은 지역에서, 2등 시민으로 취급받는 여성으로서, 가난하게 살아도 억울해하지 말라는 편견에 시달리는 예술가로 살아가는 여성들의 이야기"라고 표현한다.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 주체로서 호명되지 않는 여성, 그리고 폐쇄적인 위계 구조 속 예술인. 바깥의 바깥, 그 가장 먼 곳에서 그들이 낸 목소리는 하나였다.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여기, 여성예술인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예술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선에서 먼으로 확장해 나아가는: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의 시작

2019년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2020년 지역의 성평등 이슈를 깊이 올리면서 흩어져 있던 점과 같았던 여성문화예술인, 문화재단, 학계는 하나의 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공공과 학계, 지역문화예술인이 씨실과 날실처럼 서로를 지지하고 채워주며 걸어온 시간은 2021년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이하, 성평등 네트워크'의 출범으로 이어졌다. 전북권 5개 문화재단전북, 고창, 완주, 익산, 전주과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전북대학교 부설 여성연구소, 지식공동체 지지배배, 총 8개 기관 및 단체가 모인 성평등 네트워크는 성평등한 지역문화예술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성평등 이슈 공론화, 지역문화예술 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첫 시작으로 '성평등 예술비평학교-문화예술다리미'이하, 성평등 예술비평학교'를 진행하고, 참여자들의 활동 기록과 비평문을 모은 비평집 『스팀steam』을 발간했다.

성평등 네트워크의 첫 협력사업으로 '성평등 예술비평학교'를 운영하게 된 것은 전북 문화예술계에 성평등 의제를 이슈화하고 인식을 확산하는 것만큼, 지역 창작물 속의 메일게이즈malegaze, 남성적 시선, 여성의 대상화 문제 역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공감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북의 경우 대부분의 창작물이 효와 가족주의, 이성애 중심의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전과 전통작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가부장적 문화, 여성 혐오

와 폭력, 소수자 차별, 사회적 약자를 타자화하고 대상화하는 위험이 있었고, 이러한 작품이 '예술'로 지역민들에게 발표되는 한 지역의 성평등 인식과 성평등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지역 문화예술계가 여성, 남성의 구분에서 벗어나 제3의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 사회적 소수자까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역문화예술을 성평등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새로운 성평등 문화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창작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했다.

하지만, 성평등 예술비평학교를 지역의 척박한 비평환경과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문화예술작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활동으로 바라보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민 또한 성평등 네트워크의 주체로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것이다. 지역의 문화예술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주로 문화예술작품, 콘텐츠를 생산하는 예술가, 제작자를 그 논의의 주체로 바라보곤 한다. 하지만, 지역의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고, 작품을 관람하는 지역주민이야말로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와 방향성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체다.

이러한 관점은 2022년 진행된 '성평등 문화예술비평학교-문화예술다리미 심화과정'이하, 심화과정'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성평등 관점으로 문화예술작품을 비평하기 위한 질문들을 찾고, 지역문화예술 작품을 비평해보는 과정 속에서 참여자들은 일상적으로 향유하던

지역문화예술 작품을 성평등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게 되며, 비평문을 통해 성평등한 문화예술계, 문화예술작품에 대한 목소리를 드러낸다.

2022년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는 부안군문화재단과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가 참여하며 10개 기관·단체가 모인 협력체로 성장했다. 함께 힘을 모으는 공공기관, 학계, 문화예술인이 많아진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평등 네트워크에서는 문화예술다리미를 통해 만난 '성평등 관점에서 지역문화예술을 비평하는 주민'이 네트워크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더 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민간, 학계, 공공, 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연대, 함께하는 걸음

지난 5년 동안 민간, 학계, 공공의 영역에서 우리는 끝없이 물어왔다. 성평등한 문화예술계는 어떤 모습인가? 성평등 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은 성평등한 문화예술계가 여성이 남성의 우위에 서거나, 소수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바라보지 않는다. 오히려 지역이라는 한정적인 공간에서 기득권을 쥔 사람들이 소수자에게 가하는 폭력을 제재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화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다양성을 존중할 것을 이야기한다. 이는 한 개인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다. 고착화되고, 구조화된 문제들을 바꾸어 나가고자 하는 민간, 학계, 문화예술계, 지역

사회의 끊임없는 시도와 목소리들이 모였을 때 가능하다.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는 공공과 민간, 학계, 그리고 주민이 함께 소수를 향한 폭력을 향해 침묵하는 대신 “NO”를 외치고, 성평등한 문화예술작품과 문화예술생태계에 대해 목소리를 내며, 각자의 자리에서 지지하고 연대해 나가는 과정에 집중한다. 공공영역의 문화재단은 성평등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학계는 실천적 학문으로써 문화예술계 성평등 문제를 논의하며, 문화예술인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여성예술인들을 호명하고 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작품을 발표한다. 그리고 주민은 지역문화예술을 성평등 관점에서 바라보며 의견을 개진한다.

누군가는 말한다.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고. 하지만 우리는 안다. 성평등한 문화예술계,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배제되지 않는 문화예술계, 다양성이 보장되는 문화예술계를 만들어나가는 일에는 결과가 없다는 것을. 과정 자체가 결과이고, 의미라는 것을. 그래서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함께하는 우리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 기관·단체

고창문화관광재단

주민의 창조적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정책발굴과 사업추진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와 관광의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소: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모양성로 11(2층)

전화: 063-561-1110 홈페이지: www.gctf.or.kr

부안군문화재단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융복합 플랫폼 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깊은 역사와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가진 부안을 문화예술로 아울러 모든 군민의 일상에 예술이 함께하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주소: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선은1길 10, 2층

전화: 063-582-3948 홈페이지: www.bacf.or.kr

완주문화재단

문화예술인 지원, 문화예술정책 발굴, 민관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해 '삶과 소통하는 문화예술로 일상이 즐거운 완주'를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소: 완주군 용진을 완주로 462-9

전화: 063-262-3955 홈페이지: www.wfac.or.kr

익산문화관광재단

'모두가 행복한 문화, 관광으로 혁신하는 익산'

익산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익산의 문화예술 발전과 관광진흥을 추구합니다.

주소: 익산시 서동로4길 37

전화: 063-843-9911 홈페이지: www.ictf.or.kr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최고의 문화·관광 플랫폼이자 문화와 관광으로 사람을 품는 전북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2 전라감영빌딩 4F

전화: 063-230-7400 홈페이지: www.jbct.or.kr

전주문화재단

문화예술이 사회에 줄 수 있는 긍정적이며 바람직한 선한 영향력이 발휘되도록 혁신과 소통, 굿 거버넌스를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구렛들 1길 46 팔복예술공장

전화: 063-211-9276 홈페이지: www.jjcf.or.kr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전북지역의 성주류화 제도 지원 및 성평등 문화 확산과 성평등한 지역사회 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기린대로 209 4층

전화: 063-280-7206-7210 인스타그램: jb_genderequality

전북대학교 부설 여성연구소

젠더연구, 젠더교육, 그리고 젠더평등을 위한 지역참여를 목표로 지역 및 국내외의 젠더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성평등 사회를 향한 학술적 실천을 확산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주소: 전주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학군단 314호

전화: 063-219-5571 이메일: gender@jbnu.ac.kr

홈페이지: www.facebook.com/WomenstudiesJBNU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전라북도 문화예술계 내 성평등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예술인 당사자들의 연대체입니다.

전화: 010-3391-3525 인스타그램: 2019_jawa

지식공동체 지지배배

지식공동체 지지배배는 시, 소설, 희곡, 만화, 영화 등 문화예술 영역에서 관심분야가 각기 다른 신진 여성문학연구자들이 모여 만든 독립연구집단입니다. 서로의 연구 분야를 잇고, 이를 대중과 함께 공유하며, 동시대적 문제의식을 함께 나누는 것을 연구의 지향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역 연구집단으로서 지역의 자리를 탐색하고 지역 시민과 함께 성장하길 꿈꾸는 풀뿌리 연구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주소: 전주시 덕진구 삼송3길 42 301호



성평등 문화예술비평학교 문화예술다리미 2022 비평집
스팀steam

발행처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 고창문화관광재단, 부안군문화재단, 완주문화재단, 익산문화관광재단,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전주문화재단,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 전북대학교 부설 여성연구소,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지식공동체 지지배배
발행일	2022년 12월
진행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기획·편집	전북 거점형 양성평등센터·완주문화재단

©김혜영, 김희정, 박진아, 이은심, 정희정, 최정빈, 황채린, 이소정, 이승희, 신인혜

본 책에 실린 글은 저작권자와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성평등 문화예술비평학교 문화예술다리미 2022 비평집 『스팀steam』은 전라북도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의 '전북 성평등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여 성 주 의 시 각 을 배 워 여 성 주 의 시 각 으 로 글 을 쓰 다

steam [sti:m]

- 1.명사 김, 증기
- 2.명사 증기력, 기력
- 3.동사 김[증기]을 내뿜다